

與 차기 대표에 한동훈 차출설 6



낙동강 물로 암 억제 '펩타이드' 개발 8

코스피(6일) 2419.32 (-15.01P)
코스닥 733.32 (+0.37P)
환율(달러당 원화) 1292.60 (-7.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609% (-0.007%p)

삼성전자, 첫 여성 사장 발탁... '투톱 체제' 유지

이재용 회장 첫 사장단 인사

한종희·경계현 사장 유임

DX부문 김우준·이영희 승진

대대적 변화 대신 내실 다지기

반도체 기술 인재 대거 중용



김우준 사장

이영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후 단행한 첫 사장단 인사에서 '안정'과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인사는 네트워크와 반도체 사업 성장에 기여한 인사 중용과 여성 인재를 등용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관련기사 3편

삼성전자는 5일 사장 승진 7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9명의 '2023년 정기 사

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한종희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DS(반도체)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로 구축한 '투톱 체제'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현안을 챙기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수장(首長)인 정현호 부회장을도 유임했다.

삼성전자가 '한종희·경계현' 2인 체제

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사업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보다 내실 다지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경영 안정화' 기초는 유지하되, 초격차 기술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미래 먹거리인 네트워크·반도체 분야의 기술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비(非)오너가 중 최초로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성장과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끈 '기술 인재'들이 사장 승진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를 비롯한 5G·6G 등 네트워크 사업은 이 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직접

챙기는 분야다.

DX부문에서 김우준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사업부를 이끈다.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던 전경훈 사장은 최고기술경영자(CTO) 겸 삼성리서치사장을 맡는다. 삼성리서치장인 승현준 사장은 삼성리서치 글로벌R&D협력담당 사장으로 이동한다. 백수현 커뮤니케이션팀장, 박승희 삼성물산 건설부문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신임 사장은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CR 담당이었던 이인용 사장은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양걸 삼성전자 중국전략협력실 부실장(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DS부문에서는 남석우 글로벌 제조&인

프라총괄 부사장이 글로벌 제조&인프라 총괄 제조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송재혁 반도체연구소장 부사장은 사장에 올라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맡는다.

이영희 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이 됐다.

사장 승진자 7명 중 양걸 신임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50대로 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 준비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돌연 사임한 이재승 전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의 후임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차례로 진행될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시멘트 운송거부 첫 현장조사 175명 복귀... 업무 속속 재개

시멘트 출하율 평시 대비 80%

업무개시 효과... 추가 명령 검토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 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5편

국토교통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5일부터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화물차주는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명령서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개사와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6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이 속속 재개되면서 출하가 없는 일요일(4일)에도 시멘트 2만 4000톤이 긴급 출하됐다. 3일까지 평시 대비 출하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4295TEU,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2269TEU로 지난주 월요일(11월 28일) 반출입량과 비교해 각각 188% 수준까지 올라왔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를 위해 이날부터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만 허용했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곡물·사료운반차로도 넓히고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만 해당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으로 늘렸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따뜻한 마음 모아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진 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이 진행 중이다.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은 12월 한 달간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도시, 360여 곳에서 진행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기 불안에... 기업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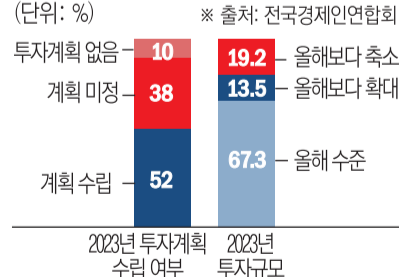
전경련, 500대 기업 조사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금시장 경색, 고환율 등 불안한 경제 여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계획'(10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0%가 내년도 투자계획이 없거나(10.0%),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38.0%)고 답했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52.0%에 그쳤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52.0%)의 내년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과반(67.3%)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

500대 기업 내년 투자계획



다 많아 전반적으로 내년 투자실적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 애로(28.6%)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시장 위축(17.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 시점에 대해서는 기업 과반(64.0%)이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응답했으며, '기약 없음'을 선택한 응답 비중도 26.0%에 달했다. 투자 활성화 시점

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비중은 '2023년 하반기' 29.0%, '기약 없음' 26.0%, '2024년 상반기' 24.0%, '2024년 하반기' 11.0%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2023년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양대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 둔화(29.1%)와 환율 상승세 지속(21.3%)을 꼽았다. 전경련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에 직면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투자 여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바라는 국내 투자 활성화 과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24.6%)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22.0%) △기업규제 완화(14.7%)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13.7%) 등으로 조사됐다.

강문정 기자 kangmj@

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새 30년 준비"

공급망 안정화로 첨단기술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폭 주석의 이번 한국 방문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이다.

▶관련기사 4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 나가자"고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연대에 역대 평화와 번영을 키워 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역대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활발한 인적교류 △인도-태평양 협력 △북핵 문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까지 총 1000억 달러의 교역액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달성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안에선 '폭군'

중당국 '反 제로 코로나 시위' 폭력진압
"시진핑 퇴진" 여론목살 '제2텐안먼' 우려
국제사회 "시 주석, 언제든 돌변" 경계감



'쩍' 커먼 두 얼굴

밖에선 '신사'

美·中 관계, 힘싸움보다 긴장완화 선택
6주간 26명 국가수장 만나 외교력 뽐내
이번주 중동행... '사우디 밀월' 과시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후 외교 성과

※ 출처: 워싱턴포스트(WP)

11월	4일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와 회담, 변화와 혼돈의 시기 협력 약속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미·중 긴장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 약속
	15~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 논의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020년 국경 분쟁 후 첫 공식 교류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양국 파트너로 협력 합의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
12월	7~9일	중국·아랍 정상회담 참석,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펼쳐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며 신사 외교에 나섰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방역 항의 시위를 탄압하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10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약 6주간 26명의 해외 정상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외교 성과를 올렸다. 3년간 코로나19를 우려해 국제무대를 피했던 시 주석이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다시 적극적인 교류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온화하고 친근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WP는 분석했다. 지난 달 4일 시 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변화와 혼돈의 시기 '협력'을 약속했다. 같은 달 14일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하며 미·중 긴장 관계가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 힘겨루기보다는 긴장 완화를 택한 셈이다.

또 시 주석은 15일 발리에서 2020년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공개석상에서 교류했다. 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중 정상회담도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 주석은 수년간 관계가 나빴던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의 회담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호주는 중국 신발에 붙은 점'이라고 비꼬는

등 틀어졌던 양국 관계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은 뒤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다.

시 주석이 '늑대 외교'로 악명을 떨쳤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신사 외교를 펼치는 것은 중국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에 동조하는 태도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집권을 위한 선전 도구가 필요한데, 이전 같은 공격적 외교로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류장웅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세계가 변했고, 중국도 바뀌

었다"며 "불필요한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예방할 것인가, 그것이 중국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국 당국은 경찰을 동원해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의 경비를 강화했다.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들의 집까지 찾아가 아이들을 구금했다. 당국은 시위 보도도 철저히 검열하고 있다. WP는 시 주석이 외교에서도 언제까지 신사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번 주 중동 순방길에 나서 중국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그는 7-9일 중국·아랍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시 주석은 그곳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회담할 계획이다. 원유시장 큰손인 중국이 최근 사우디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영민 기자 oin@



'脫석유' 진심인 빈 살만, CS에 5억달러 투자 검토

〈유럽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사진)가 위기에 빠진 유럽 대표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를 대상으로 연이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번엔 CS에서 분사해 신설되는 투자은행(IB) 'CS 퍼스트 보스턴'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밤 다이아몬드 바클레이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아틀라스 머천트 캐피탈' 등과 함께 CS 퍼스트 보스턴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체 투자액의 절반인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사우디가 부담하는 방향이다.

'CS 퍼스트 보스턴' 투자의 중심에는 마이클 클라인이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 회사의 CEO로 임명된 클라인을 지원 사격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아몬드도 바클레이스를 이끄는 동안 리먼

브러더스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클라인에게 자문한 인연이 있다. 클라인은 월가 최고 '딜메이커'로 손꼽힌다. 2019년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기업공개(IPO)를 진두지휘했으며, 사우디의 주요 거래 자문 역할을 하며 빈 살만 왕세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됐다.

이미 사우디는 사우디국영은행(SNB)을 통해 최근 CS가 사업 개편 차원에서 진행 중인 42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상태다. 유상증자 참여로 SNB는 CS의 지분 9.9%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빈 살만 왕세자는 SNB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의 수장도 맡고 있다. SNB는 CS 투자를 통해 스위스 대표 은행의 각종 노하우를 전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S는 지난 10월 대대적인 사업 개편 계획을 밝히며 쇠신에 나선 상태다. 그린실캐피탈과 아케고스캐피탈 사태

등 각종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실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CS의 올해 3분기 순손실은 40억3400만 스위스프랑에 달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손실 규모(5억 6793만 스위스프랑)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에 CS는 IB 사업부에서 기업금융과 인수·합병(M&A) 부문을 떼어내 'CS 퍼스트 보스턴'이란 이름으로 분사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금융과 M&A 자문역량을 강화해 전통의 IB 명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동시에 신설될 회사는 CS의 대규모 손실과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분사의 이유로 꼽힌다.

빈 살만 왕세자는 PIF 등을 통한 해외 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전기차 업체 루시드모터스, 소셜미디어 트위터와 차량공유업체 우버 등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에도 투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목표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왕성한 투자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해외자산 투자 나선 사우디 왕세자
스위스 대표은행 노하우 전수 기대
'위기설 CS' IB사업 분사 지원사격

THE HYUNDAI

PEACE and LOVE

2022년 겨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현대백화점에서 시작됩니다.

CHRISTMAS 캠페인

QR 코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홀리데이 쇼핑 & 이벤트

뉴삼성의 미래는 '초격차'... '기술인재' 대거 전진배치

삼성전자가 5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인재와 기술로 '뉴삼성'을 완성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사장 승진 7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9명 규모로 홍보·마케팅 분야 4명을 제외하면 5명이 모두 '기술인재'들이다. 기술인재가 뉴삼성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동력으로 '초격차'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8월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면서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했다. 6월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보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 행사장을 찾아 "팬주먹이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기술 인재 덕분"이라며 "일찍부터 기술인의 길을 걷기로 한 젊은 인재들이 기술 혁명 시대의 챔피언"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회장의 이러한 기술 중시 경영 철학은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



남석우 사장 박승희 사장 백수현 사장 송재혁 사장 양걸 사장 승현준 사장 전경훈 사장

이번 인사 9명 중 5명 '기술인재' '인재·기술 중시' JY 경영철학 반영 DS부문에선 남석우·송재혁 발탁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 특명

남석우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신입 사장은 5G·6G 등 차세대 통신 사업을 이끄는 네트워크사업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사장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품전략그룹장, 차세대전략그룹장, 전략 마케팅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영업·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DX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이던 전경훈 사장은 최고기술경영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에 선임됐다. 전 사장은 포항공대 교수 출신으로 2012년 삼성전자 입사 후 차세대통신연구팀장, 네트워크 개발팀장,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하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 사장이 기술 리더십과 전략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DX사업 선행연구를 총괄하며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리서치장을 맡았던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인 승현준 사장은 삼성리서

치 글로벌R&D협력담당으로 이동한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뇌인지과학과·물리학과 교수 등을 지낸 송 사장은 해외 주요 대학, 선진 연구소와의 R&D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에 집중한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신입 사장은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으로 발탁됐다. 송 사장은 D램과 플래시메모리 공정 개발부터 양산까지 반도체 전 과정에 대한 기술 리더십으로 메모리반도체 사업 글로벌 1위 달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1993년 이후 30년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

다. 송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전 제품의 선단공정 개발을 이끌게 된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제조담당 신입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반도체연구소에서 메모리 전 제품 공정개발을 주도했다.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조기술센터장과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을 수행하면서 반도체 공정 및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과 제조, 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역량을 두루 갖춘 남 사장의 승진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갤럭시 성공신화 쓴 이영희 삼성 최초로 유리천장 깬다

2007년 입사, 브랜드 가치 제고 2012년 부사장 이후 10년 만에

삼성전자가 사상 첫 비(非)오너가 전문 경영인 출신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5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3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이영희 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 부사장은 DX부문 글로벌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마케팅 전문가인 이 사장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광고마케팅 석사를 마쳤다. 유니레버코리아, SC존스코리아, 로레알코리아를 거쳐 200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마케팅그룹장, 전략마케팅실 마케팅팀장,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을 역임하며 갤럭시 마케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고객 가치·경험 중심 회사로의 성장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 삼성전자의 두 번째 여성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10년째 자리를 지키며 삼성전자 내 여성 사장 후보 1순위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삼성전자의 여성 사장 탄생은 여성 인력에 대한 고(故) 이진희 선대회장의 언급 이후 11년 만이다.

이 선대회장은 2011년 8월 그룹 여성 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여성이 임원으로 끝나서는 자신의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여성도 사장까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 여성 임원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대거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매년 인사철마다 유리천장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2011년 연말 그룹 인사에서 삼성전자 첫 여성 부사장(심수옥 전 부사장)이 탄생한 이후 10년간 여성 사장은 없었다.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 2016년 독일에서 열린 기어S3 출시행사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견고했던 유리천장을 깬 이영희 사장이 최초 여성 사장으로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사장 승진과 관련해 "사장 승진 후 고객 중심의 마케팅 혁신 등의 역량 발휘와 함께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LG그룹, SK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도 비오너가 출신 여성 전문 경영인을 최초로 사장급 최고경영자(CEO)로 발탁했다.

지난달 LG그룹은 이정에 LG생활건강 음료사업부장 부사장을 사장(CEO)으로, 지투알 박애리 부사장을 CEO로 내정 승진하면서 4대 그룹사 중 최초로 여성 임원을 계열사 CEO에 임명했다. SK그룹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신입 대표이사로 안정은 최고운영책임(COO)을 내정했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단단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1000대 기업 대표이사 1350명 중 여성은 32명으로 2.4%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비오너가 출신 여성 전문경영인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수 기자 citize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슬기로운 영금생활

"지금은 영금투자 시대"

2022.09.07 ~ 2022.12.31

지금 당신의 결정이 100세 시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영금투자는 NH투자증권

타사 이전 고객 / 신규 가입 고객 / 기존 고객 추가남 이벤트

구분	지금 기준 금액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영금 저축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원 미만	10만 원
IRP	1억 원 이상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3만 원

이벤트 확인하기

QR 코드: NH투자증권 이벤트 확인하기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QR 코드: NH투자증권 이벤트 확인하기

[이벤트유의사항]
 ※ NAMU계좌, 법인계좌는 제외 ※ 모든 이벤트는 중복중정기 가능 ※ 상품권 지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2023년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적용을 위한 마케팅(SMS 포함)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동의 시 상품권 지급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수신 거부, 번호오류,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쿠폰 재발송, 환불요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5만원 초과 혜택 증정 시 발생하는 22% 제세금은 당사기가 부담됩니다. 단, 해당 소득은 고객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각종규정 제16조 2항(특별이익제공한도)에 따라 IRP고객의 시용액은 최대 3만원으로 한정됩니다. ※ 지급기준금액·이벤트 기간 최종 순증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

[투자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액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한도 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장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장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RP]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며(적립금 평잔 1.5억원 이하 운용관리수수료 연 0.15%, 적립금 평잔 5억원 이하 자산관리수수료 연 0.1%,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연간 일일별 평균금액의 평균값) ※ NH투자증권 준법팀
 제2022-08호(2022.09.05~2023.09.0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2-03461호(2022.10.17~2023.01.31)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 손잡은 韓... 공급망 다변화 박차

韓-베트남 포괄적 협력 MOU

정부가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인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섰다. 국제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칠레와 호주에 이어 베트남까지 공급망을 넓히게 됐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은 핵심광물 외에도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베트남 내 대형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국-베트남 정상회의에 이어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등 3건의 협정과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만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 무역부 장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청정에너지 협력 韓기업 대형사업 수주 기반 마련 암모니아 혼소기술 개발 추진도

외에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등을 통해 산업 공급망과 탄소중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는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인 베트남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희토류 외에도 베트남은 텅스텐 매장량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여기에 한국의 핵심광물 채굴 기술이 더해지면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칠레, 호주 등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약속하며 국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했다. 베트남과의 협력까지 더해지면 핵심광물 공급망은 더 넓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언론 연합뉴스를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어진다. 핵심광물 공급망 외에도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진행했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서 '해상풍

력'을 더 강조했다. 베트남은 석탄 화력 발전비율이 31%에 해당해 암모니아 실증이 이뤄지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분야 협력은 양국이 전

문성이 높다 보니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또 베트남 내 고속철 등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 발굴과 우리 기업의 수주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쉰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양국은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고속철·경전철·메트로 사업 등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개도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초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험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을 통해 베트남을 지원한다. 양국은 또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세계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세리머니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공유자전거·항공기 상업광고 부착 허용

앞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자전거 사업이 적자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이용료가 저렴해 대부분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한 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업광고를 통해 사업의 적자 폭을 줄이고 공유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공기 본체의 전면 광고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항공기 본체 광고는 옆면의 2분의 1 이내 크기로 자사 광고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비롯해 전면 광고가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점에 차량(푸드트럭)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점에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尹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 위해 역량 총동원"

'무역의 날' 기념식서 강조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액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무역인과 수출기업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맞게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누적 수출액이 6444억 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6800억 달러까지 예상된다. 세계 수출액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원전·방산·인프라·K콘텐츠 등 새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신용국 新FTA 통해 판로 확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 3대 품목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최고 수출성과 달성에 힘쓴 무역인을 격려하기 위해 597명에게 포상을 진행했고, 178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역의 날 수상기업 대표들을 행사장으로 초청해 애로사항을 듣는 등 사전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실적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수출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수주에 성공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124억 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 등도 언급했다.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윈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방산·인프라 건설·K-콘텐츠'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정상 외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더 코리아를 심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콘텐츠 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흥시장과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역과는 신규 FTA를 추진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외환보유액 21억달러 늘어... 4개월 만에 반등

달러인덱스 전월말 대비 5%↓ 보유 규모 2개월 연속 세계 9위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두 달 연속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급락한 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급반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외환보

유액은 전월 말보다 20억9000만 달러(0.5%) 증가한 4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7월(+3억3000만 달러, +0.1%)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10월(+52억4000만 달러, +1.1%)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기록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상 달러화지수(DXY)인 달러인덱스는 11월 말 기준 105.95를 기록해 전월 말(111.53) 대비 5.0% 급락했다(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3.5% 하락한 106.82). 2010년 9월(-5.4%)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한국시간 기준으로는 2020년 7월 -4.6% 이후 최대 낙폭).

같은 기간 주요 통화인 엔화(+6.4%)와 호주달러화(+4.4%), 유로화(+3.7%), 파운드화(+3.0%)는 절상됐다. 원·달러 환율 또한 전월 말보다 105.5원(7.4%) 급락한 1318.80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150.5원)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변동률 기준으

로는 2016년 3월 -7.5% 이후 최대 낙폭).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62.56원(4.4%) 떨어진 1364.10원을 보였다. 이 또한 2009년 5월(-83.19원, -6.2%) 이래 최대 낙폭이다.

김상훈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미 달러화가 평가절하됐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환산액 증가가 외환보유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형 경제전문기자 kimnh21c@

주유소 96곳 재고 동났다... 정유·철강 등 피해 3兆 넘어

철강업계 최대... 1조306억 규모
피해 물량 주요 5社 79만톤 추산

품질 주유소 일주일 만에 5배 ↑
취약계층 난방유 수급 난항 우려
소형 건설사 레미콘수급 어려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로 접어든 5일 서울 한 주유소 입구에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문구를 붙인 주유소 점주는 "1992년부터 주유소를 했지만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영업에 많은 지장까지 주면서 파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정유·철강·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계는 철강업이다. 화물연대 파업 열흘 동안 철강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1조306억 원에 달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4일까지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물량은 주요 5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에서 79만 톤으로 추산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품 출하는 사실상 100% 중단됐다. 포스코는 일일 2만7000톤, 현대제철은 5만 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출하 지연이 길어지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연관 산업으로 생산 차질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장도 멈춰 섰다. 운송길이 막혀 출하되지 못한 제품들로 인해 재고가 쌓이자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 공장 가동

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철강업계의 피해액은 이미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당시 국내 5대 철강사 피해액은 1조1500억 원(한국철강협회 집계)으로 철강재 72만1000톤이 출하 차질을 빚었다.

이번 파업 규모가 6월 총파업 당시를 넘어서자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쌓인 재고가 너무 많고 적재 공간은 부족하다"며 "최악의 경우엔 파업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고가 동난 주유소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96곳이다. 지난달 29일 품질 주유소가 21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 재고 소진 주유소는 서울 35곳, 경기 20곳, 강원 12곳, 충남 11곳, 충북 8곳, 대전 7곳, 인천 1곳, 전북 1곳, 전남 1곳이

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충남, 충북 등으로 품질 주유소가 확대되고 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가 품질된 주유소도 늘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 품질 주유소는 80곳, 경유 품질 주유소는 8곳, 휘발유와 경유 모두 품질 주유소는 8곳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품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품질된 유종도 휘발유에서 경유 등으로 늘고 있다"며 "특

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많이 쓰는 난방유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늘고 있다. 다만 건설 현장 내 수급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3일 기준 평년 수준의 80%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레미콘(콘크리트)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콘크리트 타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관계자는 "정상화라고 보기에 어렵지만, 오늘 레미콘 일부가 들어와 타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2일 타설을 재개하려 했지만,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이날부터 타설을 시작한 것이다.

대형 건설현장과 달리 수도권 소형 건설현장은 레미콘 수급이 여전히 어려웠다.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 관계자는 "레미콘 10대를 주문하면 2대도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은 아니다"며 "날씨가 추워져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전체 수요가 줄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정용욱 기자 dragon@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중공업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첫 공동파업 돌입

이틀 걸쳐 4·7시간 작업중단
진전 없으면 13일 전면 파업
"회사 제시안 매우 부족 수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에서 근무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 파업에 나선다. 이번 주 부분파업에도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13일부터 공동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 전체 조합원 대상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7일 7시간 부분파업,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도 동참한다.

노조는 올해부터 교섭 효율화를 위해 3사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초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

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3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황은 최대 35회차, 적은 사업장은 25회차를 넘겼지만 회사의 제시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정안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의견 차가 분명하다. 사 측은 기본급 8만 원을, 노조는 최소 10만 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라는 단단계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주를 비롯한 핵심적인 경영은 각 사업장이 아닌 그룹이 관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역시 각 사업장의 자율교섭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아닌 그룹의 최종 결재 없이는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교섭은 6일 진행된다. 36차 교섭에서도 서로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 측은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전 협상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 매일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회사는 열린 마음으로 조합과 소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골때리는 그놈들이 돌아왔다!

MUSIC DRAMA

마음도 브러더스

2022년 12월 1일 (목) ~ OPEN RUN 흥대 제이엘씨어터

관객 김호연 소설 <망원동 브러더스> |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최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 조연출 전예정 | 제작 극단지우
조명디자인 김병철 | 디자인 김려나 | 기획 이케이컴퍼니·(주)브러더스 | 주최·주관 극단지우
출연 김준희 권오을 이호준 신정만 명상열 김현 황원상 오차운 고훈욱 김초록 김영규 신현규 양원석 한병수 박창희 장희재 이서경 서은교
후원 나무열의자출판사 / (주)아일랜드엔터테인먼트 / 제이엘씨어터 / 이케이컴퍼니 / 에머저 인터파크 / 네이버예약 / 모이다티켓

‘윤심 안갯속’... 與 차기대표에 한동훈 차출설

전대 앞두고 후보들 줄줄이尹 회동
정작尹 의중 깜깜...한동훈설 부상
韓, 미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 2위
총선 승리 위해 국민 관심몰이 절실

‘2달3초’(2월 말 3월 초)로 굳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윤심’의 선택을 받으려는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내 4선 중진 의원으로 일찌감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당권주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만찬 회

동에서 전당대회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적 있는 주 원내대표는 잠재적 당권 후보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당권주자들은 더 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권성동·윤창호·이철규·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권 의원은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기에 당 안팎의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나경원·윤상현 등 다른 후보들은 당원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안 의원은 매주말 충북·경기 등을 돌며 당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5일에는 “청년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격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보수층의 지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20·30세대와 중도층을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광폭 행보에도 윤심을 대변할 유력 주자는 보이지 않는다. 한 여론 관계자는 “나는 솔로”도 아니고 대통령실 의중은 보이지 않는데, 당권주자들만 깃발을 흔드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은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든다”며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했다. 같은 날 이연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한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윤심 아저씨 저저씨 해도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 중요 행사’라는 점도 한 장관 차출설에 무게가 실리는 근거다. 2024년 총선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대선 후보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해 있는 윤석열 정부에 총선 승리는 확실한 과제다.

한 여론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는 일부러라도 크게 키워서 국민들 관심을 대폭 받을 것”이라며 “그래야 총선까지 무게감 있게 지지율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변하듯 한 장관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한 장관은 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0%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에 이어 2위에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준표 대구시장(4%), 안철수의원(3%), 오세훈 서울시장(2%) 등 여론 잠재 대권 후보들과도 격차를 벌리며 여론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반희 기자 nanch0907@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 이재명, 검찰 수사엔 ‘...’

“尹정부 야당 파괴에만 몰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 맞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 개혁과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믿고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 명령으로 믿는다”며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

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기 위한 ‘민생과 민주’ 투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말을 아끼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산 특권연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위기”라며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 고통

을 덜어주고 약자 눈물을 닦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는 (출범) 200일 동안 정치를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과 국가 성공을 위해 정부·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정무위 휴전했지만 삼성생명법 등 ‘오리무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의결
금융쟁점 법안 논의는 ‘스톱’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금융 쟁점법안을 다룰 소위원회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에 넘기자는 차원에서 전

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무위원회는 다시 공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삼성생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을 다룰 법안1소위의 6일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소위 개최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멈춘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범야권 ‘노란봉투법’ 연대

민주노동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며 힘을 합쳤다. 이들은 여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며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기면 다시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은 불법”이라고 맞서며 6일 경제6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북한이 5일 NLL(북방한계선)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3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사진은 2019년 북한 방사포 타격 훈련 모습. 노동신문 캡처

北, 동·서해상 NLL 코앞으로 130여발 포병 사격

한미 MLRS 훈련에 무력시위

북한이 5일 동·서해상에 설치된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

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쏘았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

이번 포격은 군과 주한미군이 철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다연장 로켓(MLRS)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철원 일대에서는 현재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이 이날 오전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돼 있다. MLRS 사격은 한미가 같이 하는 훈련이다.

군은 북한 포격에도 기존 계획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디폴트옵션의 시대, 든든한 퇴직연금 공유해 드릴까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은행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든든하게 KB국민은행과 함께하세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도
역시 KB국민은행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DC/IRP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2022-3778(2022.11.29) 유효기한 (2023-11-28)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KB 국민은행**

낙동강 미생물로 암세포 억제 ‘펩타이드’ 개발

**낙동강생물자원관, 특허 출원
이들 만에 폐암세포 절반 줄여
높은 생산 효율로 실용화 기대**

국내 연구진이 방선균의 유전체를 이용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펩타이드를 개발했다. 현재 특허 출원은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진은 이달 안에 논문을 발표하고 향후 항암 약 개발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담수에서 분리한 방선균 ‘마이크로모노스포라’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5종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방선균은 방사선균이라고도 불리며 곰팡이 균사와 같이 실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로 증식하는 원핵생물이다. 토양, 하천, 식물, 동물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선균이 존재한다. 항생제 70%가 방선균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분해가 어려운 물질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산업 미생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한 분자로 대략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인 단백질

에 비해 비교적 짧은 구조로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신규 펩타이드 5종이 간암 세포(HepG), 폐암 세포(A549), 대장암 세포(SW480) 성장을 모두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암 세포를 대상으로 효과가 가장 뛰어났는데 한 펩타이드는 폐암세포 투여 이들 만에 절반을 줄였다. 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펩타이드 개발은 9월에 연구가 완성,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이달 안에 논문이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 연구 결과를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암 약의 후보 가능성은 검증한

상태”라며 “항암 약 등으로 진행하려면 추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관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펩타이드를 직접 합성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미생물이 생산하는 펩타이드를 직접 추출하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주로 미생물을 생균 형태로 활용하거나 유용 대사산물을 정제해 활용했으나, 이는 배양이 어렵거나 펩타이드의 생산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생물자원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선균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펩타이드를 화학 합성, 암세포 억제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상철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신규 펩타이드 개발은 국내 담수 미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유전체 연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미생물 유전체를 활용한 펩타이드의 소재화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의류 물가 10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의류 물가가 10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5% 상승했다. 통계청은 의류 업계가 가격을 올려 계절 신상품을 출시한 경향이 있고 목면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과 중국의 임가공비가 오르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의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의류점.
고이관 기자 photoeran@

공정위, 가맹본부 ‘강매’ 없앤다

**한기정 “필수품목 기준 구체화
가맹점에 필요 없는 제품 퇴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5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를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장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꾀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초과 세수 50조 넘지만...내년부터 세수 타격

**법인세 인하 등 감세 본격화
1%대 저성장 땀 세입여력 ↓**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호조에 힘입어 50조 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99조8000억 원)가 전년보다 32조5000억 원 늘고, 소득세(108조5000억 원)와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고호 호조 및 소비 개선으로 각각 12조2000억 원, 7조

7000억 원 더 걷힌 것이 전체 국세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2조5000억 원 늘어난 399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올해 8월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올해(399조6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초과 세수에 비해서 대폭 줄어드는 증가 폭이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초과 세수는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1%대 저성장에 머

물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준 2.2%에서 1.8%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에서 1.8%로 내렸다. 최근에는 노무라증권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0.7%로 제시하면서 역성장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세수 전망치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농민단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해야”

**“단임제, 일회성 전시사업 한계”
국회, 연임제 개정안 4건 발의**

농협계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단임제는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연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대변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농협중앙회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4년 단임제로 연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사업구조 개편 등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중협의 설명이다.



이성희(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서울 영동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견학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중협은 “지난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명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며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장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고,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중협은 주장한다.

한중협은 “신협과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1973@

국내 육묘산업 규모 2000억 육박... 3년새 22% 성장

국내 육묘산업 규모가 2000억 원에 육박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3년 새 40%가 늘었다.

국립중자원은 5일 국내 육묘업체 14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자산업 현황조사(2021년 기준 육묘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육묘업체의 판매액은 총 1989억 원으로, 직전 조사 때인 2018년 판매액 1632억 원에서 21.9%가 증가했다. 판매액 1989억 원 중

국내 판매액이 1978억 원(9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출은 11억 원(0.6%)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채소 묘 판매액이 1564억 원(78.6%)으로 2018년 대비 17.2% 늘어나며 주력 품목으로 조사됐고, 식량작물 묘가 286억 원(1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화훼 묘는 5.7%인 11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대비 171.4%가 늘어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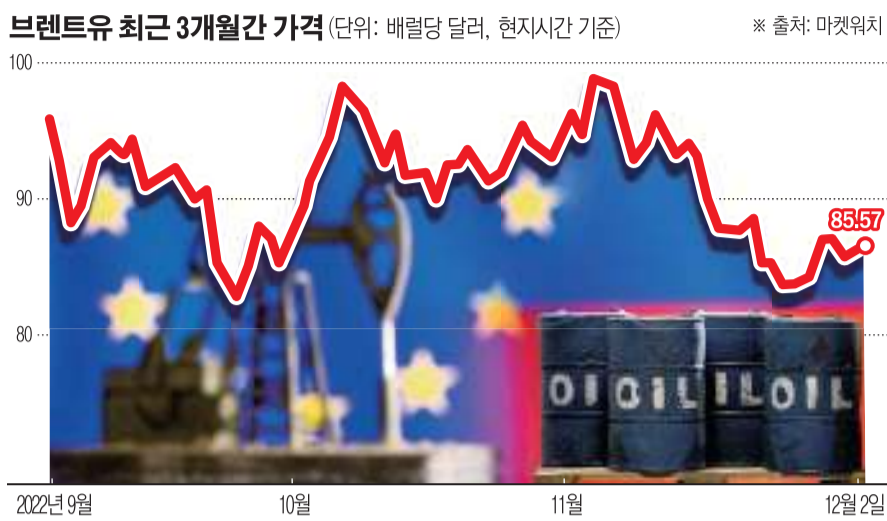
육묘업체의 주요 판매처는 재배농가가

64.1%, 농약·종묘상 10.8%, 일반소비자 8.5%, 묘 도매상 7.7%, 농협 4.3%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종사자 수도 함께 확대됐다. 지난해 육묘업체 종사자 수는 7437명으로 2018년 5287명에서 40.7%가 증가하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고령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육묘업체 1431개 중 판매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1171개로 81.8%를 차지했다. 판매액 9억 원 이상인 대규모 업체는 40개에 불과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1973@

OPEC+ 감산 유지에... 불확실성 커진 원유시장

기존 하루 200만배럴 감산 지속 EU·G7 리 원유값 상한제 시행 사우디 가격방어 '유가상승 변수' BoA, 내년 브렌트유 110弗 전망 경기침체 불안, 강력한 하방요인



글로벌 원유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서방사회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착수했다. 하루 전,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기존 감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급 차질 요인이 쏟아지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는 가운데 중국 경제활동 재개 여부와 세계 경기침체 규모가 향후 원유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OPEC+는 4일 회의에서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한 10월 결정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 세계 원유 생산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압박에도 산유국들이

감산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OPEC+의 결정은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구권 국가들은 가격 상한제에 따라 배럴당 60달러(약 7만7600원)가 넘는 러시아 원

유에 대해 운송과 보험 서비스를 금지한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4일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움직였다.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량이 하루 최대 1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가는 수급 우려 전망에 5일 아시아시장에서 오름 폭을 확대했다. 내년 1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2%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산유국 감산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사우디는 중국의 수요 회복 정도를 지켜본 뒤, 추가 감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OPEC+는 내년 6월까지 회의 일정이 없지만, 시

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지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전략을 버리고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이 또한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설문 조사한 전문가 16명 가운데 9명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예상보다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즈호증권의 세레나 저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이미 제로 코로나 전략에서 빠져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고점을 더 높게 잡는 전망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1달러를 찍고 내년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다른 산유국의 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세계 경기침체 우려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하방 요인이라고 BoA는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1997~2012년 사이 태어난 세대>

美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 Z세대가 달궜다

"단순 쇼핑 아닌 친목행사로 여겨" 오프라인 소비자 17% 증가 기여

미국 최대 쇼핑시즌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쇼핑에 나선 사람들 중 단연 눈에 띈 건 Z세대였다. 통상 1997년에서 2012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이들 Z세대가 올해 추수감사절 쇼핑 열기를 한껏 띄웠다고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웬에퀴티리서치에 따르면 Z세대는 2028년 미국 내 소비자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조사기관 NPD의 크리스틴 클라시-쥬모 애널리스트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Z세대의 높은 매장 방문율이었다"며 "젊은 소비자들

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친목 행사로 여기고 쇼핑물을 가득 채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겐 쇼핑이 전부가 아니었다. 단체로 어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동부에서 18개 쇼핑몰을 운영하는 PREIT의 조 코라디노 최고경영자(CEO) 역시 "연휴 동안 우리 모든 연령층에서 쇼핑객을 봤지만, 확실히 젊은 층의 강력한 수요를 봤다"며 "판매 실적 가운데 일부는 가장 인기 있는 Z세대 브랜드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Z세대의 쇼핑 열기 덕분에 이번 연휴 기간 전체 쇼핑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전미 소매협회(NRF)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휴일 동안 1억2300만 명 넘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온라인 소비자는 1억3020명으로 오프라인 소비자보다 늘었지만, 증가율은 2%에 그쳤다. Z세대의 오프라인 쇼핑이 늘어난 건 함께 어울리려는 습성 때문도 있지만, 가격보다 브랜드를 중시하는 쇼핑 기준도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은 레깅스 한 켤레에 120달러(약 16만 원)가 넘는 고가 브랜드 물루레몬을 비롯해 아릿지아, 에어리 등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주도하는 브랜드들이 젊은 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현상에 주목한다. 클래식-쥬모 애널리스트는 "18~24세 쇼핑객 3명 중 1명은 쇼핑 조사를 위해 먼저 소셜미디어를 본다"며 "이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있는 '머스트해브(꼭 사야 하는)'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중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귀환한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4호'가 4일 네이멍구자치구 동평 착륙장에 무사히 착륙한 가운데 직원들이 캡슐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6월 5일 우주정거장으로 향한 3명의 우주인은 183일간 우주에 머물면서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마지막 작업을 감도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도착하고 나서 경례하는 선저우 14호 선장 천둥. 천둥은 앞서 2016년 선저우 11호에서도 33일을 보내 중국 최초로 200일 이상 우주에 체류한 우주인이 됐다. 동평(중국)/EPA-AFP연합뉴스

트위터 '광고주 이탈' 일단락되나... "애플 광고 재개"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재개하면서 주요 광고주들의 이탈이 일단락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로 돌아온 광고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광고주가 광고를 재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 오디오 방송 '트

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완전히 재개했다"고 밝혔다. IT 전문매체 플랫폼머뉴스는 아마존이 연간 1억 달러(약 1295억 원)에 달하는 트위터 광고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아마존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제너럴모터스(GM)와 식품업체 제너럴밀스, 제약사 화이자 등 주요 미국 기업

들이 트위터가 머스크에게 인수된 이후 혐오 관련 콘텐츠 관리 약화나 문제 있는 계정의 복구 등으로 잡음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줄줄이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인 애플이 광고를 끊고 앱스토어에서도 트위터를 퇴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저격하기도 했다. 다만 이틀 뒤 머스크가 "팀 쿡 애플 CEO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말하며 화해했음을 시사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네이버웹툰부터 카카오까지 헤지펀드들, K-웹툰에 군침

글로벌 헤지펀드들 비롯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차세대 투자 먹거리로 한국의 웹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블룸버그가 소개한 헤지펀드는 약 6억 달러(약 7752억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GVA자산운용이다. GVA는 올해 우리나라 비상장 웹툰 제작사 케나즈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18% 하락하는 동안 GVA 자산운용의 주력 펀드 손실률은 4%로 선방하고 있다. GVA는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과 일본 소비자들을 따라 머지않아 한국 웹툰 시장을 좇을 것으로 예상한다.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초 엔 GIC가 비상장 웹툰 제작사 리디에 투자하기도 했다. 당시 배기식 리디 대표는 자사 첫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을 한국을 넘어 해외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자랑했다.

음악·드라마 인기 커지며 주목 매출 3년간 3억→8억달러 성장 GVA, 비상장 제작사 케나즈에 1500만달러 투자해 최대주주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음악과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문화는 뜨거운 투자 테마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웹툰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웹툰 사업 매출은 2017년 3억 달러를 밑돌았지만, 2020년 8억 달러까지 늘었다. 웹툰 기업들은 구독자들의 유료 구독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티파니 탐 애널리스트는 "웹툰이 BTS나 오징어 게임만큼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웹툰에 대한 소비자들과 미디어의 관심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홍 GVA자산운용 대표는 "지금 웹툰 시장엔 많은 기회가 있다"며 "투자할 대상사는 많지 않지만, 우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비상장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년 내로 웹툰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 웹툰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지난달엔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내년 상장을 계획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또 "웹툰은 Z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TV 드라마나 영화에 웹툰을 접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커지는 콘텐츠 간 접목 추세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외국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입점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는 "웹툰은 한국에서 호황을 누리는 산업으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전기차 설비 전환”... 기아 광명2공장, 반년간 ‘셋다운’

기아 광명오토랜드 2공장을 내년 하반기 전면 가동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아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탈바꿈할 이곳은 약 7개월의 설비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5일 기아에 따르면 광명 2공장은 내년 상반기 점진적인 생산 축소와 인력 재배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전기차 생산설비 교체를 위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아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광명 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전용공장 전개를 위한 생산설비 교체 공사를 시작한다”며 “공사는 내년 12월 말 또는 2024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비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완성차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기아 광명 2공장은 내년 6월부터 최소 7개월 동안 가동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연간 31만3000대 규모로 1~2공장이 맞물려 있다. 1공장에서 △카니발(KA4)을 비롯해 △스포츠세단 스티어링(CK) △대형 세단 K9(RJ) 등을 생산 중이다.

지난달 기준 △카니발 1만1800대(내수 6700대, 수출 5100대) △스티어링 1500대(내수 200대, 수출 1300대) △K9 650대(내수 610대, 수출 40대) 등을 생산했다.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매달 1만4000대 안팎의 완성차가 이곳에서 나온다.

상반기 생산 축소·인력 재배치 6월 가동 중단하고 설비 교체 늦어도 2024년 1월 공사 종료

화성·광주공장 추가전환 초석 5년간 11종 신규 전기차 출시

내년 하반기 전면 가동중단에 돌입할 2공장은 100% 수출 전용공장이다. 수출형 소형차를 전문으로 생산 중인 이곳에서 프라이드(YB)와 스토닉(YB CUV) 등을

생산한다. 규모는 월 1만1000대 수준. 이 밖에 엔진 1~2공장에서도 매달 약 2만5000기의 엔진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되는 2공장이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설비교체 작업에 나서면서 하반기 셋다운에 돌입한다.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프라이드와 스토닉 등은 내년 상반기 광명공장 생산을 중단한다.

다만 수출 시장에서 매달 1만 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누리는 만큼, 위탁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보도에 따르면 위탁생산 업체로 현재 모닝과 레이 등을 생산대행 중인 동희오토가 유력한 것

으로 알려졌다.

광명 2공장의 전기차 전용공장 전환은 향후 기아 화성·광주공장 전기차 전환 전략의 밑그림이 된다. 이를 앞세워 앞으로 5년 동안 11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3종)→2024년(2종)→2025년(2종)→2026년(3종)→2027년(1종) 등의 5년 전기차 로드맵도 공개했다.

기아 관계자는 “현재 계획은 내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 12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7개월 동안 필요 인원이 출근하게 되고 2024년 1월부터는 전체 근로자가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케미칼, 美얼티엄셀즈에 1兆 음극재 공급

GM-LG엔솔 배터리합작사에 포항공장 생산분 6년간 공급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얼티엄셀즈와 인조흑연 음극재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성공에 이어 첫 수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얼티엄셀즈와 약 9393억 원의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포항공장에서 생산한 인조흑연 음극재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에 공급한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보다 배터리 충전 속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특성이 있어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다. 원료 조달이 어렵고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 왔으나, 포스코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연산 8000톤의 포항공장을 준공하며 국산화에 성공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흑연의 원료 중 하나인 침상코크스를 탄소소재 자회사인 피엠펜텍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원료부터 최종 소재 생산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했다. 독자 개발한 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도입해 제조비용 절감과 실시간 품질 관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사, 배터리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북미·유럽 현지에서의 음극재 사업도 추진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권역별 공급망 강화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 양산 능력 확대에 나서 현재 연산 8만2000톤의 음극재 생산 능력을 2025년 17만 톤, 2030년 32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수주 외에도 북미에서 얼티엄셀즈와의 대규모 양·음극재 공

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소재 핵심 공급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GM과 캐나다 퀘벡에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해 약 21조 원 이상의 양극재를 북미와 한국에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합작사를 통해 양극재 공장 증설과 중간원료인 전구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사로서 원료부터 소재 생산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갖춘 사업경쟁력이 수주 결실로 이어졌다”며 “독자적인 기술과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양·음극재 사업을 균형 있게 성장해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소재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모비스가 'CES 2023'에서 공개하는 신개념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 TO'(왼쪽)와 '엠비전 HI'.

현대모비스 '차세대 PBV' CES 공개

콘셉트카 '엠비전 TO·HI'와 모빌리티 신기술 19종 공개

현대모비스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3'에서 목적기반모빌리티(PBV) 관련 신기술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참가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CES에서 현대모비스는 역대 가장 넓은 면적인 780㎡(약 236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가는 길에 오 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Hi For Better Tomorrow)'를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한다.

핵심 신기술은 신개념 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 TO'와 '엠비전 HI'다. 엠비전(M.Vision)은 현대모비스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철학과 비전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TO'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Toward) 의미를, 'HI'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Humanity)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차량이다. 차량의 전, 후측면에 위치하는 4개의 기동에 카메라, 레

이다, 라이더 등 센서와 e-코너 모듈, MR(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융합했다. 엠비전 TO 내부에는 PBV에 걸맞게 접거나 회전이 가능한 좌석이 탑재된다.

엠비전 HI는 레저와 휴식, 아웃도어 목적에 맞게 개발된 PBV다. 차량 유리를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엠비전 HI에는 시선을 컴퓨터 마우스처럼 활용하는 원거리 조작 기술이 적용돼 별다른 조작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도 공개된다. 특히 스윙블 디스플레이와 신개념 후륜 서스펜션 기술은 CES 2023 혁신상(이노베이션 어워드)을 받기도 했다. 스윙블 디스플레이는 32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빙 구조가 특징이다. 전기차나 PBV 등 미래차에 적용돼 기능 통합과 경량화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이밖에 글로벌 고객사를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해 양산 가능한 모빌리티 신기술 19종도 선보이고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사업과 기술 개발 방향,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디어 발표회도 진행한다.

이민재 기자 2mj@



“공기청정기야, 커피테이블이야”

LG전자가 나만의 맞춤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기능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신개념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를 이달 14일 출시한다. 사진제공 LG전자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출시

오브제컬렉션 컬러 선택 가능

LG전자는 신개념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4일 출시되는 신제품은 인테리어와 편의성까지 고려하는 고객을 위한 융합 공기청정기다. 테이블로 활용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하단이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의 원통형 디자인이다. 상단은 원형과 트랙형 타입 테이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이 오브제컬렉션 색상 3종을 활용해 제품 구매 시 위아래 동일 색상이나 각각 다른 색상으로 조합해 맞춤형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테이블, 필터커버 등 별도 판매하는 액세서리를 조합하면 선택 가능

한 모델 수는 18종 이상이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는 △유해 세균을 99.99% 제거하는 UV 나노(UVnano) 기능 △항바이러스·항균 효과와 극초미세먼지를 비롯해 5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공기청정 필터를 탑재했다. 청정면적은 19.8㎡(약 6평)다.

LG전자는 에어로퍼니처 외관 재질을 페전자기기에서 추출해 만든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 이대수 기자 citizen@

볼보,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 진출 35년 만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 누적판매 10만 대를 달성했다. 독일 차 강세의 수입차 시장에서 '스웨디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을 받는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누적 판매량은 총 10만1079대로 집계됐다. 1987년 700시리즈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약 35년 만이다. 괄목 성장은 2012년부터다. 이후 10년 연속 연간 판매량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다. 한국 시장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TMAP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TMAP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23년식부터 전 차종에 장착한다.

또 전국 볼보자동차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25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땀 쏨뽀 위기”

노동규제 개선 대토론회

직원 130여 명 규모 중소기업인 컴윈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채용사이트나 민간 고용 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상시채용하고 있지만 입사지원자는 거의 없다. 11개 직종에서 인력채용을 실시 중이나 최근 3개월간 채용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담비전스는 현재 20여 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이다. 담비전스는 연구개발을 주로 해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감일 준수를 위해 야근실력을 하거나 마감과 가까운 특정 주간에 주 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해소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는 노동 규제 해소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제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에 집중됐다. 기업의 업종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강봉수 담비전스 대표는 “비용절감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 단축이 필수적인 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때때로 제약이 된다”며 “근로복지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 해당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에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인 미만 제조업 4곳 중 3곳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대책 無 획일적 52시간제 부작용 심각
이영 장관 “고용부에 전달하고 논의 내용 국회서 목소리낼 것”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 제도 일몰시엔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작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제도다. 주 52시간제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율해 맡기지 허용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루 빨리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 대목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일몰을 막기 위해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이번 주에 국회에 갖고 들어가겠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수용범위를 현장과 확인해 부족하다고 느끼면 1

월부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만 사적계약의 주체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현장에 맞게 외국인 전체 입국 쿼터제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입국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 E-9(비전문외국인력)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취약계층에 손내민 삼표그룹

삼표그룹은 임직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성북구에서 창립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전국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 삼표그룹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보일러

스마트 온수 기능 품질 극대화

귀뚜라미는 스마트 온수 기능을 장착해 온수 품질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모델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가스보일러'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가스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低NOx) 국내 기준 1등급으로 환경부 친환경 인증 기준치(에너지소비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20ppm 이하 등)를 충족하는 친환경보일러이다.

특히 소비자가 온수를 사용하는 시간을 보일러가 학습해 온수를 준비하는 '스마트 온수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탁월한 온수 품질을 제공한다.

스마트 온수 기능은 사용자의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빠른 온수를 내보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수일에 걸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예상 시간 30분 전부터 열교환기를 예열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온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인 저탕식 열교환기는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 온수 출탕이 빠르고, 화장실이 2곳인 가정에서도 풍부한 온수를 동시에 공급한다.

또 온수 품질을 좌우하는 친환경 메탈라이버(금속 섬유) 버너의 불꽃 크기를 세밀

하게 조절해 대용량의 온수는 물론이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소량의 온수를 사용할 때도 소비자가 원하는 온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이번 신제품은 온수 품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귀뚜라미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계승하는 저탕식 제품인 만큼 난방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 열전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박에 없는 강화마루나 대리석이 깔린 바닥과 넓은 평수의 가정에서도 빠른 난방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외도 귀뚜라미보일러의 고유 기술(발명특허 제10-1845856호)인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로 구성된 2중 안전시스템을 본체에 내장해 보일러 내부 가스누설이나 강한 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최고급 사물인터넷(IoT) 실내 온도조절기(NCTR-200WIFI)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보일러의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가스보일러는 AI 학습 기능으로 온수 품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우선으로 고려한 프리미엄급 신제품”이라며 “넓은 평형에서도 온수와 난방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쾌적한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명품 보일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www.kwnews.co.kr

강원일보 네이버 제휴 2년만에

구독자 200만

통합CMS, 구글GNI시스템 가동... 맞춤형 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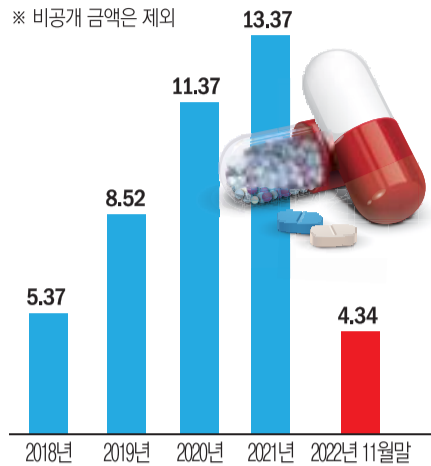
77년 역사의 강원일보가 제2의 디지털 혁신을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2019년 9월 뉴스 콘텐츠(CP) 제휴를 한 데 이어 카카오 뉴스(다음 : daum)와도 검색제휴를 맺은 강원일보는 강원도 현안과 강원도 소식을 전국 2천5백만 디지털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 왔습니다. 강원일보는 지난해 3월 19일 네이버 모바일 구독자 100만명에 이어 현재 구독자 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인구 157만을 기준으로 보면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월평균 기사 조회수 또한 2,000만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글 뉴스 인시티브(GNI) 독자 맞춤형 AI시스템을 본격가동, 독자 맞춤형 뉴스 콘텐츠 생산에도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CMS를 도입해 실시간 속보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포털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대 강원도 대표언론 강원일보가 수준높은 뉴스콘텐츠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바이오 기세 꺾였나... 기술수출 30%로 급감

11월 4.3조 작년 3분의 1 수준
兆단위 대형계약 단 1건에 그쳐
4년 연속 수출 신기록 행진 스텝
해외 제약사들도 기술이전 위축

연도별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액
(단위: 조원)



파죽지세였던 K바이오 기술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몇년간 활발하던 기술수출 규모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기술수출 금액은 4조34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13조3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K바이오 기술수출 규모는 2018년 5조 원을 처음 돌파한 후 해마다 성과를 올려왔다. 2019년 8조5200억 원을 달성했고, 2020년에는 11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엔 더욱 늘어 올해도 10조 원대 기술수출을 기대했다.

시작은 활기찼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월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와 약 1조2720억 원 규모의 퇴행성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900억 원에 달했다. 지씨셀과 종근당바이오, 이수엠플지스도 낭보를 전했다.

2월에는 항체 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노벨티노빌리티가 미국 발렌자바이오와 약 88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티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c-KIT) 타깃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NN2802'이 주인공이다.

4월까지의 월마다 크고 작은 기술수출 소식이 이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싱가포르 주니퍼테라퓨틱스에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TG-C)'를 기술수출했다. 총 7234억 원 규모로, 한국과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구·개발, 상업화 독점권을 넘겼다.

상반기 기술수출은 여기서 일단락됐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약 6조2500억 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하반기 1조 원을 넘는 달이 아직 없다. SK바이오팜은 7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브라질 유로파마에 기술수출하며 중남미 시장을 뚫었다. 티움바이오는 중국 한소제약에 자궁내막증 신약후보물질 'TU2670'을 2208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9월에는 보로노이와 동아에스티, 올리패스가 성과를 알렸다. 보로노이는 고형

월별 기술수출 현황

시기	기업	물질	계약기업(국가)	규모(원)
1월	지씨셀	이문셀엘씨	리바라(인도)	비공개
	에이비엘바이오	ABL301	사노피(다국적제약사)	1조2720억
	종근당바이오	타임바스	큐티아테라퓨틱스(중국)	83억
2월	이수엠플지스	파바갈	NPO페트로박스팜(러시아)	비공개
	노벨티노빌리티	NN2802	발렌자바이오(미국)	8778억
3월	제넥신	GX-E4	KGBIO(인도네시아)	159억
4월	코오롱생명과학	TG-C(인보사)	주니퍼테라퓨틱스(싱가포르)	7234억
7월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로파마(브라질)	810억
8월	티움바이오	TU2670	한소제약(중국)	2208억
9월	보로노이	고형암치료후보물질	메티스테라퓨틱스(미국)	6680억
	동아에스티	DA-1241/DA-1726	뉴로보파마슈티컬(미국)	4715억
11월	올리패스	올리패스 PNA플랫폼	반다제약(미국)	비공개
	동아에스티	DA-3880	폴리파마(튀르키예)	비공개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암 치료를 위한 경구용 인산화효소 저해 물질을 약 6680억 원 규모로 미국 메티스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뉴로보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과 지분투자를 동시 진행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2형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26'이다. 지난달에는 튀르키예 폴리파마에 2세대 빈혈 치료제 다베포에틴-알파(Darbepoetin- α) 바이오시밀러 'DA-3880'의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독점 개발 및 판매권을 이전했다.

올해 기술수출은 개별 건에서도 지난해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조 단위 대형 계약이 5건이었지만, 올해는 에이비엘바이오 한 곳이다.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 기업도 에이비엘바이오 뿐이다.

임상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에

게 기술수출은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적 자기업은 자금 확보 기회이기도 하다. 에이비엘바이오의 경우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을 수령하면서 올해 3분기 흑자전환했다.

기술이전 위축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빅파마들의 기술이전 건수는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30% 이상 줄었고, 규모는 4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관련 기술이전 수요 감소와 함께 팬데믹(대유행) 시기 바이오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빅파마들이 점 찍어둔 파이프라인을 싸게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미뤄둔 기술이전 수요가 불어나 내년에 기술수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셀트리온 '렘시마' 안전성 아태 류마티스 학회 발표

셀트리온은 태국에서 실시된 '렘시마(개발명 CT-P13)'의 시판 후 장기투여와 효능관찰 연구에서 안전성 확인 및 유효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6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ALPLAR)에서 포스터(Poster) 발표로 공개된다.

셀트리온 측은 태국에서 간직성적추염·류마티스관절염·건선성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6주간 렘시마를 투약 관찰하는 시판 후 연구(PMS)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렘시마 투여에 따른 감염 △결핵 △주입 관련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간질환 △알부민을 포함한 안전성이 중점 평가됐고, 투약 전후 환자 상태를 비교하는 유효성 지표 평가도 진행됐다.

렘시마는 201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후 2013년 유럽의약품청(EMA), 2016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국가별 PMS 진행 등 임상적 근거 확대 노력을 통해 렘시마가 유럽, 미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자기면역질환치료제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신약 파이프라인 총망라 K-SPACE 플랫폼 오픈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는 5일 '2022 KPBMA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행사를 열고 신약개발 가속화 협력 플랫폼 'K-SPACE'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정보를 총망라한 K-SPACE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한 블럭버스터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SPACE 플랫폼은 국내·외 파이프라인을 정기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문호 개방·국내 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업간 파트너링을 촉진시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원 회장은 "제약 바이오는 산·학·연·병·정이 함께 가는 구도에 속해 있다. 정부에서도 메가 펀드를 만들어 민관협력에 나서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 회장은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를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유한양행과 제노스코가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18년 안선에 기술 수출하며 1조4000억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며 "유한양행은 수차례의 실패사례를 겪으며 성공했다. 한 건의 협력으로 성공하는 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쉽지 않다.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넓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의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에 29개사가 기술 공급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이들 기업이 공개한 신약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36건 선정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벤처 투자 쏠쏠하네"... 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가속

대용제약, 스타트업 공모전 유한양행 1.4조원 수출 결실 중외제약, 바이오 5곳 협력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과의 협업 강화에 적극 나섰다. 제약사는 유망기술을 선점하고, 바이오벤처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형 제약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제약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용제약은 이달부터 기술 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 유망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공모전 2기'를 진행한다.

공모전을 통해 대용제약은 △창업 △기술협력 △초기 시드 투자 외에도 중

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창업 투자프로그램 팁스(TIPS) 연계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팀에게 1억 원 규모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또 대용제약 임직원과 공동 창업할 경우, 추가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한다.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한양행은 2015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해 50여 개의 회사에 지분투자를 실시했다. 그 결실이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레이저티지'이다. 유한양행이 2015년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물질을 도입해, 2018년 임상2상 완료 후 안선을 통해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올해 9월 유한양행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프로젠과 협약을 맺고 다중 표적 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초연구 협력,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공동개발에 나서며 신약 발굴에 팔을 걷었다.

JW중외제약도 올해에만 5개 국내 바이오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코크로스와 AI플랫폼을 활용 신약후보물질의 신규 적응증을 탐색하기로 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의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모델을 활용한 비임상과 임상 사이의 중개임상을 강화해, 신약 개발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와 저분자항암신약을 탑재한 타깃형 엑소좀 치료제 공동연구, 디어젠과 AI 기반 혁신신약 개발 공동연구에도 나선다. 지난 11월엔 에스앤이바이오와 전략적 투자(SI) 계약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지분 5.1%를 확보하기로 했다.

셀트리온도 '피노바이오'의 항체-약

물 접합체(ADC) 플랫폼에 지분 투자해 ADC 치료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분투자에 앞서 셀트리온은 피노바이오와 플랫폼 기술실시 옵션 도입 계약과 공동연구 계약도 맺었다.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에 피노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ADC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검증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해 바이오산업 전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은 투자금을 확보하고, 제약사는 유망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동아에스티 '스티렌' 출시 20주년 ... 45억정 누적 처방

위염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

동아에스티는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사진〉이 출시 20주년을 맞았다고 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로 개발된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 스티렌 정은 2002년 12월 출시됐다.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약 45억1355만정이 처방됐고, 약 8533억 원의 누적 매출(스티렌 2X정 포함)을 기록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위점막보호제 시장 점유율 1위(유비스트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환자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 기존 경질 캡슐에서 정제로 변경했고, 2016년 특허 출원한 플로팅(Floating) 기술이 적용된 '스티렌 2X 정'을 출시해 하루 복용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다. 2019년에는 스티렌 정과 스티렌2X정의 제형 길이와 무게를 축소하고,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김성진 동아에스티 스티렌PM 수석은



"스티렌은 앞으로의 20년 또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환자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 꼬이고 커진 위믹스사태

위믹스 상폐 가져분 D-2
“유통량 문제, 공시 의무화하고
임직원 불법, 처벌하면 될 일”
업비트 “질서 확립 위해 결정”
전문가 “강제 퇴출은 최후 수단”



위메이드 WEMADE 12월 4일 바이낸스 커스터디 발표 “위믹스 투명성 · 안전성 강화”	업비트 UPbit 12월 2일 입장문 “건전한 질서 위한 결정. 위믹스 임직원 연루 증대 사안도 있어”
투자자 12월 4일 호소문 “스톡홀름 증후군” 표현 모욕적... 자산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	전문가 12월 4일 SNS “자율규제서 강제 퇴출은 최후 수단... 과도한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회(협의회)’가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는 이번 결정을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와 거래소 측은 5일 상폐 가져분과 관련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입장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리와 이날 제출된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7일까지 가져분 심리를 완료하겠다고 방침이다.

위믹스 투자자 약 300여 명이 조직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회(협의회)’는 4일 커뮤니티에 ‘재판부께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는 위믹스 400만 개를 보유해, 상폐될 경우 100억 원 대 피해를 보게 될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해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

어권과 자위권을 행하고 있음에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로, 이번 사태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측에게 비합리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협의체는 닥사가 유통량 및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닥사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유통량이 문제라면 규칙을 정해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처리할 문제”라면서 “모든 사안에 제3의 방법이 존재함에도,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명백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규제와 메타버스 등을 주도해온 전문가 역시 투자자들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절차와 결정의 과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보통 자율규제는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와의 공생의 지혜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면서 “문제가 반복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탈퇴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량 관련 문제

가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유통량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태도나 행동이 신뢰를 회복하진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져분 심리 과정에 제기했던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증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익이 우선이었다면, 거래수수료를 위해서라도 상폐를 결정하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은 가져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호소문, △바이낸스 커스터디 △위믹스 임직원 연루 불법행위 등의 자료도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예정된 8일보다 하루 앞선 7일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LG U+, 스마트항만 솔루션 선봬

울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 계기
 LG유플러스는 조선해양기자재 및 ICT·SW 관련 국제 전시회 ‘2022 조선·해운·항만 디지털전환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항만 디지털트윈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행사의 공동주관사인 ‘울산항만공사’의 초청을 계기로 참여해 B2B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이게 됐다. 양측은 지난 7월 국내 최대 액체물류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에코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5G 전용망과 MEC 플랫폼, 5G RTK·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2 조선·해운·항만 디지털전환 국제 컨퍼런스는 울산광역시 주최하고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스마트·자율운항 및 스마트항만을 선도하는 국내 기술력을 글로벌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7일 이틀간 울산전 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부스 운영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스마트항만, 스마트팩토리, 환경·안전 솔루션,

기업전용망 등 4개 분야의 상품과 기술을 전시한다. 우선 항만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드는 ‘항만 디지털트윈’의 경우 최근 구축이 완료된 부산신항의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 운영장비 및 차량을 실시간 관제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분야는 공장 내 설비의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터진단’, AI가 정상적인 생산라인을 학습하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감지하는 ‘생산라인 이상감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이 각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한 눈에 살피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관급업 LG유플러스 스마트팩토리 사업담당은 “우수한 기술들이 집결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LG유플러스의 스마트항만·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어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산항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항만 솔루션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사장님 대신 동식님’... 직급제 폐지 KT클라우드

직원들에 경영 현안·성과 공유
세대 교류 ‘보일링 포인트’ 도입
 KT클라우드의 직원들은 직급을 불문하고 ‘님’ 호칭을 사용한다. 올해 입사한 20대 신입 사원은 윤 대표에게 “동식님, 2023년 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을 정도다. 젊은 세대와의 유연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직급제를 폐지하고 ‘님’ 호칭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T클라우드의 직원들은 고유의 기업문화 프로그램으로 ‘보일링 포인트(Boiling Point)’를 도입해 전 직원의 소통과 공감에 심혈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가 출범 8개월을 맞아 전 직원에게 경영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는 ‘কেল 공유해’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KT클라우드

을 기울였다.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직원들과 교류하며, 서로 융화돼 회사와 함께 뜨겁게 성장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끓는점(100℃)을 의미하는 ‘보일링 포인트’로 명명했다. 특히 세대별 교류와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90℃’를 통해서 90년대 생 직원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친분을 쌓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80년대생을 위한 80℃,

70년대생을 위한 70℃에서도 각 세대별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 대표는 “우리만의 고유한 기업문화로 전 임·직원이 더욱 단단해진 케를 원팀(One-Team)이 되었고, 이는 우리의 사업 경쟁력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격의 없는 소통과 경계 없는 공유로 서로 공감하고, 본질에 더 집중해 대한민국 No.1 DX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거래소 3사 합작 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

트래블블 솔루션 확장 책임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블을 합작법인 ‘코드(CODE)’가 차명훈 대표에 이어 이성미(사진)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코드는 신임 대표 선임 배경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블 솔루션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확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빗썸의 초대 AML(자금세탁방지제도) 센터장과 준법감

시인을 거쳐 사업협력실장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한 협회 및 규제 마련에 참여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이 신임 대표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와 내부통제 및 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게 코드 측 설명이다. 코드 관계자는 “트래블블을 포함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레그테크(reg tech)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있는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성미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유일 트래블블 솔루션인 코드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드는 이성미 신임대표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외 코드 트래블블 서비스 확대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준수 허브로서 소통과 연계 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2년 12월 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55,500	5,900 (3.9%▲)	이오스	1,266	16 (1.3%▲)
리플	524	-2 (0.4%▼)	트론	71	-1 (1.4%▼)
솔라나	18,540	390 (2.1%▲)	스텔라루멘	118	1 (0.9%▲)
에이다	433	3 (0.7%▲)	비트코인에스비	56,600	150 (0.3%▲)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입주권 준다고 샀는데...” 신통기획 ‘거짓 매물’ 주의보

자양4 통합 재개발 추진지역
7월 준공 빌라 매수 문의하니
중개업소에선 “입주권 나온다”
1월 28일 후 준공 땀 현금청산
입주권 얻지 못하고 수익 손해
서울시 “거짓 홍보, 집중 단속”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역
‘권리산정기준일’**

2020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공모	- 선정구역: 2020년 9월 21일
2021년 9월 23일 민간재개발 공모	- 선정구역: 2021년 9월 23일 - 미선정구역: 2022년 1월 28일
2021년 12월 30일 공공재개발 공모	- 선정구역: 2021년 12월 30일 - 미선정구역: 2022년 1월 28일
향후 공모 (민간/공공재개발)	-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2022년 1월 28일

※ 출처: 서울시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일대 빌라 전경.

사진제공 상도15구역재개발추진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세훈 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는 신축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매물 거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신청 구역들에서 현금청산 위협성이 있는 신축빌라 매매 물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는 K 빌라 전용 14㎡형 매물이 7억 원에 매매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해당 매물은 자양4동 통합 재개발 추진

지역 안에 있다. 앞서 지난해 이곳의 자양동 1, 2구역으로 나뉜 상태에서 신통기획 1차 공모에 도전했다가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에 현금청산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통합해서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이다. 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467명 중 1058명이 동의해 최종 72.1%의 높은 동의율로 신청했다.

기자가 이 매물에 대해 매수 문의를 하자 중개업소 관계자는 향후 재개발 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매물은 매입 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된다. 이 빌라는 올해 7월 29일 사용 승인이 난 신축 빌라로, 권리산정기준일인 올해 1월 28일 이후에 준공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4억 3500만 원이다. 만약 7억 원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 시 단순계산만으로도 2억 6500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선정 구역 역시 향후 공모로 선정된다면, 이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한다. 이에따

라 신축빌라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 올해 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해 가 구별 등기를 받아야만 한다.

실제로 향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매물이 팔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285번지 일대 D 빌라 전용 32㎡형은 6월 5일 3억95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 빌라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지역 안에 있다. 상도15구역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 주민동의율 73%로 신청했다. 해당 빌라의 사용승인일은 올해 4

월 19일로, 만약 이곳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집주인은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빌라는 전체 1133동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통기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만큼 앞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신축 빌라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재개발 2차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자치구 추천결과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전체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조개기 등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거짓 홍보하는 중개업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개업소가 2만7000여 곳이 있어 거짓 홍보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감정가 3분의 1 낙찰, 응찰자도 뚝... 잔뜩 움츠린 빌라 경매시장

연말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수심리가 식으면서 매매는 물론, 경매 시장마저 빌라를 찾는 발길이 뜸 끊긴 모양새다. 일부 사례에선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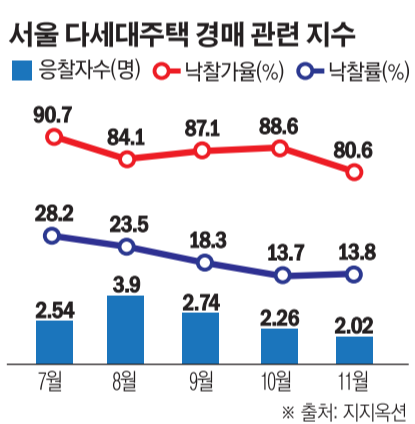
5일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전용면적 113㎡형 다세대주택 한 가구는 감정가의 32% 수준인 최종 2억1712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서부지법 경매3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지난 5월 기준 6억7900만 원이다.

해당 물건은 5월 경매 이후 여섯 차례나 더 경매를 진행한 끝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당 경매물건 인근 빌라 전용 39㎡형 호가는 이날 기준 5억5000만 원 수준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낙찰가율 80.6%로 내림세
응찰자 수도 2.02명 ‘연내 최저’
낙찰률 두달째 10% 초반에 그쳐
“전셋값 하락·대출금리 상승 여파
내년 상반기 상황 더 나빠질 수도”

또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 경매3계에서 열린 서울 송파구 삼전동 전용 90㎡형 다세대주택 한 가구 역시 감정가 6억1644만 원의 78% 수준인 4억7788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곳은 응찰자가 10명이나 몰렸지만,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 이하로 형성됐다.

보통 경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사용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더 높은 낙찰가를 써내 낙찰가율이 오르지만, 집값 하락 전망이



이어지자 응찰자가 몰려도 감정가 이하에서 낙찰가가 형성된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 좋다 보니 거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빌라 매매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아파트 값이 떨어지다 보니 빌라 시장에도 관망세가 번진 상황이고, 낙찰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빌라 경매 관련 통계 수치

는 악화일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0.6%로 나타났다. 7월(90.7%) 연내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뒤 계속 내림세다. 응찰자 수 역시 지난달 평균 2.02명으로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 다세대주택 낙찰률(입찰 물건 중 낙찰 물건 비율)은 13.8%로 10월 13.7%에 이어 두 달 연속 10% 초반에 머물렀다. 올해 빌라 낙찰률은 1월 31%로 시작해 4월 40.8%까지 올랐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영향으로 매수세가 끊기면서 낙찰률은 줄곧 하락했다.

빌라 낙찰률 10%대 기록은 지지옥션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빌라 낙찰률은 25.3%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빌라 낙찰률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가율 82.9%에 낙

찰률 15.9%, 평균 응찰자 수는 3명으로 집계돼 빌라 시장 상황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 이후 빌라 경매 시장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반기 들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강통주택’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월부터 10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가 총 598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셋값 하락과 대출 금리 상승 영향으로 경매에 내몰리는 물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매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서민은 전세 보증금 회수도 어려워질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시장 악화로 빌라 낙찰가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길이 막혀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HDC랩스 “2024년 기업가치 1조... 고객 디지털 경험 강화”

출범 1년 만에 매출 3배 ‘경쟁’
연구개발비, 두배로 확대 계획
상업공간플랫폼 등 신사업도



HDC랩스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는 2024년 기업가치 1조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연구 및 개발(R&D) 비용 역시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HDC랩스는 지난 2021년 12월 HDC 아이코트홀스가 HDC아이서비스를 흡수합병해 출범한 기업이다. 스마트홈 산업을 주력으로 하며 스마트빌딩(IBS), SOC, 인테리어 및 조경 사업을 영위한다.

HDC랩스는 올해 △공간에 디지털 경

험을 결합한 사업 개발 △스마트홈 통합 앱과 오피스플랫폼 비즈니스 운영플랫폼 개발 △매출 규모(2000억대→6000억대) 확대에 따른 경제 실현 등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HDC랩스는 스마트 사무공간의 무인화 시범사업 등 공간 관련 디지털 사

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CSP(상업공간플랫폼)을 시작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R&D 투자 규모를 두 배 늘릴 계획이다.

또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신사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투자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핵심 인력을 자체 육성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해 R&D 캠퍼스 1기생을 채용하는 등 공간 사물지능융합기술(AIoT) 플랫폼 기업으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김성은 HDC랩스 대표이사는 “합병 조직의 화학적 통합과 관리 안정화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대우건설, 창사 첫 도시정비사업 ‘5조 클럽’

작년 이어 또 최대수주 실적

대우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5조 클럽’에 입성했다.

대우건설은 3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 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조8993억 원의 최대수주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501가구와 부대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급액은 4746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수주액 5조2763억 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몇 년간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강화하며 주택시장을 예측하고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질의 사업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하이엔드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푸르지오(Prugio)’와 ‘써밋(Summit)’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수주실적 호조의 배경으로 꼽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선호도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 이상의 수주고를 올린 것은 대우건설 주거 상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위상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우건설을 선택해준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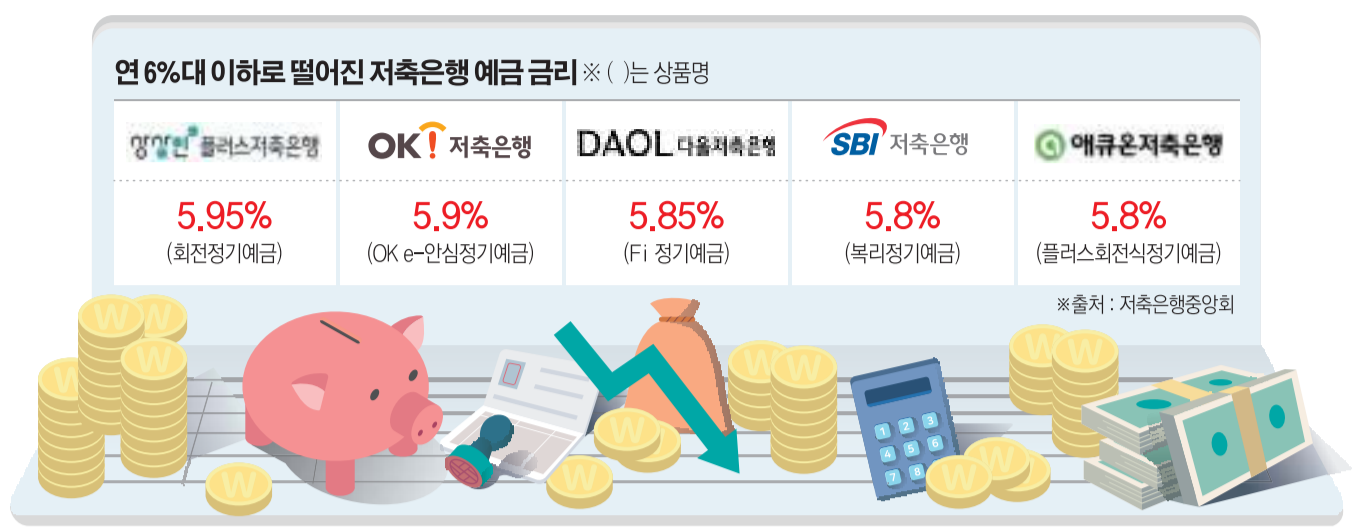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고객 '핑긋' 저축銀 '방긋'

개인 투자자 최 모씨(37)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연 7%까지 갈 것이라 관측이 많아 기존 예금을 해지했다. 더 높은 금리로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기존 예금 해지를 후회하고 있다. 최 씨는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왜 수신금리는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 시중銀 자금쏠림 우려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 경쟁 제동
 年 6%대 저축銀 예금 자취 감춰
 저축銀 "조달비용 부담 줄어 환영"
 고객 "기준금리 오르는데" 불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금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사실상 수신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조달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반기는 눈치다.
 5일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최고 금리 예금상품(1년 만기)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연 5.95%)'이다. 연 6%에 못 미치는 금리 수준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저축은행 최고 금리는 연 6.5%를 기록했는데, 이제 연 5%대로 내려앉았다. 현재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5.51%다.

지난달 20일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연말에는 연 7%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오히려 수신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존 예금을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발이 묶였다.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노마드족'들이 투자를 잃으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 쌓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주장들이 나서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신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나란히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 자금 변동성이 큰 연말에 금융사들이 앞다투 수신금리를 올리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져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투자자들과 달리 업계에선 최근 수신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나친 금리 경쟁으로 인해 유동성이 시중은행으로 쏠릴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2금융권은 경영 악화에 놓일 수 있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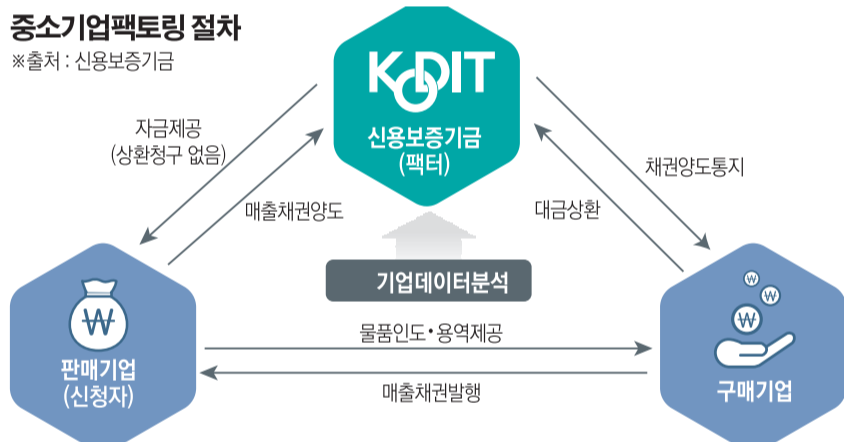
특히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최소 1%포인트(P) 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 3-4분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놨는데, 사실상 출혈경쟁으로 당장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5대 저축은행 업권의 3분기 순이익은 5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750억 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상이 그동안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수신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비용 등이 증가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해온 만큼 지나친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라며 "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법근 기자 nova@

중소 자금조달 어려운데... 신보, 내년 팩토링 공급 안 늘린다

수요 늘고 대출금리 인상 불구 공급규모 600억... 올해와 동일
 전문가 "내년 경기 악화 전망 정책금융 확대해 도산 막아야"

중소기업팩토링 절차
 ※출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지원 사업인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이하 팩토링)의 내년 공급 규모가 올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출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보의 팩토링과 같은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신보 측은 내년도 팩토링 공급액은 올해와 같은 6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신보관계자는 "팩토링 금융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내년도 공급금액 규모는) 전반적인 재정 긴축 추이에 따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팩토

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원을 마련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신보의 정책금융사업이다.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신청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때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게 상환의무가 없다. 팩토링은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시기에 중소기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

힌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팩토링 사업 공급실적(11월 말 기준)은 공급목표인 600억 원의 95%인 5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신보가 내년도 팩토링 공급금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00억 규모로 계획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에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되는데,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기업 부실화가 심해질 것"이라

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책금융을 확대해 기업 도산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며 "신보 등에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면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팩토링) 사업 규모로는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팩토링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정책금융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피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흑자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 등 육식을 가려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내년부터 자산·부채 시가로" 보험사 지급역력 평가 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역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신지급역력제도 K-ICS)이 이뤄진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금융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하도록 신지급역력제도를 마련했으며 IFRS 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역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급역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지연 기자 sjy@

"전세보증금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최근 강동전세(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면 새집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 소중환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를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5일 안내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 노조 "또 다른 국정농단"

노조 "산은법 개정 안 끝났는데 부서 이전은 불법... 법적 대응"

산은 "지역성장 조직 강화 차원"



산은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산은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에 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서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에서 산은과 국토부-부산시·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위 쟁점 사항들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수립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

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실무 검토해 왔다.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위는 국토부와 '산은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크게 반발했다. 이날 조운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근무했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흘러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도 국정농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이라는 또다른 국정농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월 강석훈 회장 취임 이후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하

지만 산은 역시 최근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부산 이전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 이전에 대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산은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우회적으로 부서 이전을 통해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현재 법무법인과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측은 "앞선 조직개편은 위기 대응 역량 제고와 지역성장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직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미래에셋 최현만·이만열 ‘연임’... 중소형사는 ‘교체설’

증권사 CEO 거취 촉각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속에 대다수 CEO가 재임받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증권사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CEO들의 거취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실적 악화에 대비변수 변수 영향이 컸던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조정 등을 겪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CEO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5일 본지가 취합한 국내 주요 증권사 21곳 가운데 13곳의 CEO 임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만료된다. CEO 임기 만료 대상자는 공동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이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 이영창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KB증권은 이들 CEO의 재임임과 교체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KB금융 계열사 대표들은 통상 4년(2+1+1) 임기를 가져가는데, 둘 다 올해 4년째 사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시 불확실성을 이유로 두 CEO를 한 번에 교체하기보다 일부만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

13개사 15명 줄줄이 임기만료 증권가 실적악화에 불확실성

KB·신한 지주사 임원인사에 박정림·김성현·이영창 판가름 교보 이석기·하나 이은형 유임

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 공모 등을 인정받아 김 사장은 머물고, 박 사장은 KB금융그룹내의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모회사인 KB금융지주의 영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이나, 허인·이동철·양종희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임원의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그룹 주요 경영진의 변화에 따라 증권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들의 인사에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영창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이 후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김성현 KB증권 사장, 이영창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은형 하나증권 사장

보군으로 거론된다. 후속 임원 인사에 따라 이 사장의 연임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이만열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연말 인사를 두고 “질책보다 격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CEO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총괄제 5개 대표가 모두 유임됐다.

이석기 교보증권 사장, 이은형 하나증권 사장, 최병철 현대증권 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돼 한 차례 더 맡을 가능성이 크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도 임기가 내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이사회 임기 만료 기간으로 사실상 황 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이밖에 2019년 취임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연임도 유력해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1년 단위로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있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다. 적자였던 한화투자증권은 권 사장 취임 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희망퇴직과 조직정비를 하는 다음투자증권은 이창근 사장의 연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취임 후 우상향한 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면 이 사장의 유임이 유력해 보이지만,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단속과 경영진의 책임 차원에서 봤을 때 교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음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

은 책임경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기 IBK투자증권 사장은 이미 올해 3월 임기가 끝났지만,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이달 은행장 교체도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서 사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신 SK증권 사장,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김병영 BNK투자증권 사장등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 때문에 증권사들의 상황이 안 좋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대표이사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묻는 형태로 증권사 사장단 인사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與野 정쟁에 발목잡힌 자본시장 혁신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국회 갈등에 법안 발의는 뒷전 尹정부 자본시장 혁신과제 부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정쟁으로 주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관장상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정안 작업에 그나마 진척이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무쟁점 법안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아직 개정 발의안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연말을 앞두고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사거나 팔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안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혁신 과제가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안이 몇 백건이 넘게 계류돼 있는데 무쟁점 법안만 처리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투증 “계열사 카뱅 지분 인수”... 자기자본 9兆 눈앞

한국투자증권은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수한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모두 확보할 경우 자기자본 규모는 6조 원대에서 9조 원대로 불어난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려는 절차를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100%를 가진 지주사이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2%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한국금융지주의 손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27.2%의 지분

을 우회적으로 보유한 셈이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27.18%)보다 많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확보하면 자기자본이 3조 원가량 늘어난다. 한국투자증권의 올 3분기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6조 2654억 원이므로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로 자기자본이 9조 원대에 이르게 된다. 올 3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이 9조 3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이 6조 8100억 원으로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은 세 번째다. 정성욱 기자 sajjikoku@

내리막길 리츠... 10개 중 8개 ‘공모가 아래’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커지며 배당이익 감소 투자매력도 폭 자금확보 전환사채 발행까지

국내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도 부담 요인이다.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상장 리츠 21개 가운데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SK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를 제외한 17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리츠 대부분의 공모가는 5000~5500원 수준이다. 2015년 케이타리츠가 주당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분할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13.4%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는 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와 연관이 깊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 등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매매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물가 상승할수록 임대료가 함께 올라 인플레이션을 헤지(회피)할 수 있는 대안 투자처로 꼽힌다.

문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했다는 점이다.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매각이 불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IFC 인수를 위해 사모 리츠를 설립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가를 거부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도 부담이다. NH올원리츠는 내년 1월 1180억 원의 차입금이 만기를 맞는다. 당시 연 3%였던 대출 금리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관건은 당시 매입한 건물 가치가 이자 부담을 상쇄할 만큼 올랐는지도.

롯데리츠는 내년 상반기 6580억 원의 리파이낸싱(재융자)이 대기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보다 이자 부담액이 1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달 부담이 커지면 배당 가능 이익이 줄면서 투자 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SK리츠는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SK리츠는 109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회차)를 발행하기로 했다. 종로타워 편입을 위해 29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지 두 달 만의 결정이다. SK리츠 측은 “오는 14일 만기가 돌아오는 3340억 원의 전자기사채 만기 상황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내년 상장을 추진하는 삼성에프앤리츠, 한화리츠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츠 시장에 ‘별들 날’이 올까. 전문가들은 육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정적인 자산과 배당 매력을 갖춘 리츠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침체기의 리츠는 외형 성장보다 차입 비용 절감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은 궁극적으로 자본 확충과 자산 편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KB운용 “국고채 30년 ETF, 개인 순매수 500억”

1개월 수익률 9.15% 채권형 선두

KB자산운용은 ‘KBSTAR국고채30년 Enhanced’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KBSTAR국고채30년Enhanced’ ETF는 국내 채권형 ETF 중 듀레이션(잔존 만기)이 가장 긴 상품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0월 4.3%를 넘겼던 30년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 3.6%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기채 ETF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9.15%로 국내 채권형 ETF 중 1위다. 10월 21일(5만6670원) 연저점 대비 22%가량 상승했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본



부장은 “최근 채권 ETF로의 자금 유입은 기관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기관은 국내 전체 채권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종합채권(국고채·회사채)과 지표물인 3년, 5년 국채에 주로 투자했고, 개인은 파킹통장 개념으로 단기 채권을 사거나 30년 장기채권을 저가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갯뚜기' 마저... ESG경영 놀랐다

식음료업체 ESG 경영 분석

식음료업체들의 ESG 등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라면업계에서 1~2위인 농심과 오뚜기는 각각 2단계, 3단계 뒤로 밀렸다. 신세계푸드는 2단계 하락하며 'B' 등급을 기록했다. SPC삼립도 올해 1단계 뒷걸음질친 'B'를 받았다.

5일 본지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2년 ESG 등급'을 분석한 결과 식품업계에서 가장 등급 변화가 컸던 업체는 오뚜기다. 지난해 통합등급 'A'에서 올해 'C'로 무려 3단계 떨어졌다. 유통업계로 범위를 넓혀도 최대 하락폭이다. 산업계 전반에서 3단계 뒷걸음질친 기업은 흔치 않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등급을 S와 A+, A, B+, B, C, D 등 7단계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오뚜기의 환경 등급은 지난해 'B+'에서 올해 'C'로 낮아졌다. 한국ESG기준원은 환경 분야(E)에 대해 리더십과 거버넌스(의사 결정체계),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노동관행과 인권 등을 평가하는 사회 등급(S)은 지난해 'A+'에서 올해 'B+'로 2단계 내렸다. 지배구조(G)는 'B+'에서 'C'로 2단계 내려섰다. 오뚜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속 경영 보고서 격년 발행 등 실제 ESG 활동보다는 평가 대처에

오뚜기, 통합등급 3단계 떨어져 "내부적으로 ESG평가 대처 미흡"

농심, 사외이사 연임·배당 논란 지배구조 C등급... 2단계 하락

업계 "평가기준 자세히 안 알려줘 노력했지만 제대로 평가 못받아"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라면업계 선두 농심의 ESG 등급 하락 폭도 적지 않다. 농심의 통합 등급은 작년 'B+'에서 올해 'C'로 2단계 하락했다. 환경 부문은 'B'로 그대로였고, 사회 부문도 작년과 같은 'A'를 받았다. 하지만 지배구조 항목은 'B'에서 'D'로 2단계 몰락했다. 농심 측은 "사외이사 연임과 배당 방법이 지적받으며 지배구조 등급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통상 상장사들이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정률배당에 나서는 것과 달리 농심은 최근 18년간 주당 4000원을 유지하는 정액 배당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지난해 'A'에서 올해 'B+'로 한등급 내려섰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지난해와 같은 'A' 성적표를 받았지

업체명	분야	2021년	2022년
오뚜기	통합	A	C
	E(환경)	B+	C
	S(사회)	A+	B+
	G(지배구조)	B+	C
농심	통합	B+	C
	E(환경)	B	B
	S(사회)	A	A
	G(지배구조)	B	D
신세계푸드	통합	A	B
	E(환경)	B+	C
	S(사회)	A	B+
	G(지배구조)	A	B+
SPC삼립	통합	B+	B
	E(환경)	B	C
	S(사회)	A	B+
	G(지배구조)	B+	B

※ 등급: S, A+, A, B+, B, C, D 7단계 ※ 출처: 한국ESG기준원

만, 신세계푸드의 통합 ESG 등급이 작년 'A'에서 올해 'B' 등급으로 계열사 중 유일하게 'B'를 기록했다. 환경 부문은 'B+'에서 'C'로, 사회 부문과 지배구조 부문은 각각 'A'에서 'B+'로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ESG평가에서 신규항목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면서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을 다시 정립하고 인력도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리기계트 운영사 파리기계트 최대주주 둔 SPC삼립의 경우 통합 등급이 'B

'에서 'B'로 떨어졌다. ESG기준원 관계자는 "사건사고를 반영할 경우 심각성을 따지기 위해 3~4년간 반복한 사건인지와 실제 관리책임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 조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올해 발표는 2021년 평가를 집중 반영하고, 올해 (사고 등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올해 발생한 사고는 내년 평가에 심층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식품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통합등급 'A+'를 받았던 풀무원도 올해 'A'

로 한단계 내려갔다. 해태제과식품과 크라운제과는 나란히 지난해 'B'에서 올해 'C'로 하락했다.

반면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 롯데제과,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통합등급 'A'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B+'에서 올해 'A'로 1단계 올랐다.

이외에도 교촌에프엔비와 사조동아원, 샘표, 잇츠한불,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등이 C 등급 유통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ESG기준원은 C등급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한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D등급 기업은 BYC와 쌍방울, 신영외교투와 동원수산, 마니커, 신원, 형지엘리트 등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노력에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평가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ESG기준원 측은 "지난해 평가 기준을 개정하며 보여주기식 홍보를 하는 기업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심화 평가를 통해 횡령이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총점 하락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통업계가 연말 먹거리와 홈파티 등 각종 타이틀을 내세우며 할인전을 잇따라 열고 있다. 한 해 실적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최대한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내년 1월4일까지 대형마트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쇼핑몰(Mall), 온라인몰 등이 모두 참여하는 '홈플러스'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등 각종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가격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신세계그룹 '쓱데이'나 롯데그룹 '롯데데이'에 착안해 홈플러스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

유통업계, 연말 할인대전 스타트... 연간 실적 막판 스퍼트

행사 기간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가전과 의류는 파격가에 선보인다. 또 홈플러스는 3만여 이월 재고상품은 최대 80% 할인하는 '창고 대방출' 행사까지 마련해 '홈플러스 볼프' 행사로 진행한다. 올리브영은 7일까지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상품을 중심으로 올해의 히트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올영세일'을 실시한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약 1억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에 기반해 매년 부문

별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을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다. 이번 '올영세일'은 '오늘의 특가', '선착순 특가' 등 '올영세일'만의 시그니처 이벤트를 통해 어워즈 수상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전양판점도 결산 세일에 나선다. 롯데하이마트는 19일까지 사전 예약으로 애플

아이패드 프로11, MS 엑스박스 시리즈S, 브라운 면도기9 시리즈, 쿠쿠 제트블로우 드라이기 등을 판매하고 최대 20%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12월에 매장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총 50명을 추첨해 구매 금액의 100%, 최대 100만 원을 롯데하이마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결혼과 입주, 이사를 앞둔 소비자들을 위해 12일까지 '이사, 워딩 빅 페어' 이벤트도 마련했다. 11월부터 내년 2월에 이사 및 입주하는 소비자들에게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과 청소기, 공기정정기, 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 구매 시 2%를 추가 할인해준다.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선물을 제공한다. 전자랜드는 12월 한 달간 창립 34주년을 기념해 블랙파워세일 행사를 열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34개 모델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과 함께 판매한다. 롯데홈쇼핑은 15일까지 올해 인기 브랜드를 집중 편성하고 쇼핑 혜택도 제공하는 '2022 고객 감사대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총 10명을 추첨해 올해 누적 구매액의 100% 페이백(최대 100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욱 “李 ‘공식적으로’ 씨알 안 먹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느냐.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 6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남씨 “그 사람은 이재명, 워딩 자체는 사실”
김만배 측, 귀국 전 인터뷰 신빙성 지적하자 내용 부연
“이 대표에 돈 전달했냐” 질문엔 회피, 김씨에 화살 돌려

만났”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언급했다. 김 씨 측은 경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씨알이 많이 먹힌 것’이라고 지적하자 남 변호사는 “말에 사람이 다한 것이다.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남 변호사가 출소 직후 이 대표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며 “김 씨에게 들었다”며 조건을 달고 있다.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합류시켰다고 했지만 자신이 김 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남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남 변호사가 “(김 씨가) 성남시의회 로비뿐 아니라 이재명과 가까운 민주당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김 씨가 김태년 의원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 씨 측은 “김만배 씨가 김태년 의원과 친분이 깊다면 의원에게 주면 되지 보좌관을 통한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

박하자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면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가 자신에게 전화동인 1호 지분 10%를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 대표 최측근 3인방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가 돌아가며 전화동인 1호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 변호사는 “어차피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니 고민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제게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화동인 1호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영하권 강추위에 치솟은 전력수요 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지난날 30일 전국적으로 최대전력은 8만 2117MW(메가와트)로,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렀던 전날(7만5720MW) 대비 급증하며 8만MW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한국전력 서울본부 전력수급 상황 현황판 모습.

9일 수능성적 발표 ‘정시 레이스’ ‘충원율’ 고려한 지원전략 세워야

오는 9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면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된다. 대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상향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정시충원율’까지 고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5일 진학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시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의 충원율이 높아지고 고려대, 이화여대는 하락했다.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미등록 충원(추가합격)이 이뤄진 비율을 말한다. 충원율 100%는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이 충원되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복합격자가 나와 충원이 발생하며, 상위권 수험생의 지원 비율이 높은 인기학과에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율도 높은 편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충원율이 높는데, 이는 최상위권 자연계열 지원자 중 의학계열에 중복합격으로 이탈하면서 상위권 대학 내에서 연쇄적으로 충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원율이 높아지면 실질경쟁률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A 대학에서 10명을 모집하는 학과에 100명이 지원했다면 최초 경

쟁률은 10대 1이다. 최초 합격자 10명 중 5명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면 5명을 충원하기 위해 15명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100명 중 15명까지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경쟁률은 6.67: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시에서 최초 경쟁률이 3대 1 미만일 경우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학의 충원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통합수능의 결과로 분석된다. 통합 수능 첫 해로 예측이 어려웠고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 이슈로 전반적으로 상향 지원하려는 추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이 보장되는 성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향 지원을 통해 희망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최근 입시결과를 통해 희망대학과 학과의 경쟁률과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보험금 대신 받은 엄마... 대법 “압류 가능” “양육비로 쓴 건 면제”... 보험사 ‘빈손 승소’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번 대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이 잘못 나가는 했으나, 대신 수령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 등에 적법하게 썼다면 남은 돈만 돌려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근간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 반환 추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B 씨는 사망 시



‘일신전속권’ 아니라는 첫 판결
“정당한 지출은 반환의무 없어”
채권자 DB손보 결국 ‘회수불가’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과 2005년 각각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이후 B 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B 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근간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DB손해보험은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확정 판결에 따라 A

씨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 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라는 결론을 유지했지만 반환 청구권이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지를 두고는 입장을 1:2심과 달리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이와 같은 반환 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공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박일경 기자 ekpark@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폐지론 고개

교육부 “시스템 개선해 재발방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5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에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의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서술식 교원평가에서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며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된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일로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육설, 성희롱 등 금지어가 포함된 경우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지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Class가다른 상위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이청득심”... ‘소통·상생’의 찾아가는 현장경영

(以聽得心)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제주 이어 부산 임직원 격려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 얻는다”...맡은 바 본분 ‘네바퀴론’
“강한 결속력 바탕, 새로운 도약 원년” 5대 핵심과제 제시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다.

강 행장은 2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 경남광역시 산하 임직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현장경영’은 지난달 28일 제주지역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강 행장은 제주도 내 제주지역금융본부와 일도지점을 찾아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영업점별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올 한 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번 부산 방문에서도 강 행장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내년 경영목표와 자신의 경영철학을 공유했다. 특히 강 행장은 논어의 한 구절인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子)’

를 인용하며 직원들에게 ‘네 바퀴론’을 강조했다. 네 바퀴론이란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임직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자율·책임경영을 실천하자는 당부를 담았다.

수협은행 내부 출신으로 직원들과의 강한 결속력이 강점으로 꼽혔던 강 행장은 취임 초부터 ‘소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취임사에서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청득심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조합을 상생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신숙 수협은행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경남광역시 산하 임직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 ‘찾아가는 현장경영’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h수협은행

말했다.

강 행장은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임기간을 새로운 수협은행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 행장은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지향적 조직체계 구축 △어업인과 회원 조합 지원 강화 등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 행장은 앞으로도 지방영업점 활성화와 임직원 격려를 위해 지방영업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강 행장은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해 자생력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하고 협동조합은행의 정체성을 실현하자”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고 조직체제와 인력운영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노션 CCO 김정아 전무
광고인 포상식 산업포장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 유공광고인 정부 포상식에서 이노션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김정아(사진) 전무가 국내 광고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무는 1996년 광고업에 입문한 이래 26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SKT, 신세계, KT, CJ, 카카오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의 브랜드 캠페인을 제작, 책임, 총괄 진행하며 국내 광고업계 발전과 더불어 경제 산업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인정돼 최종 수상자로 선발됐다

이민재 기자 2mj@

인사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차주목

◆이수그룹 <대표이사 선임>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이수시스템 손원동 △이수창업투자 정홍규 △이수AMC 이용진 <승진> ◇부사장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최창복 ◇전무 △이수화학 안전생산본부장 김동민 △이수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김준복 △이수웁시스 신약본부장 박장준 ◇상무 △이수화학 온산공장장 최수현 △이수건설 기획관리실장 겸 경영기획팀장 원성필 ◇상무보 △이수 기획담당 박건태 △ “브랜드전략팀장 조요한 △이수화학 재경팀장 김범수 △ “ R&D3팀장 김이호 △ “ 온산생산팀장 박상규 △ “ 프로젝트팀장 손봉기 △이수페타시스 설계기술팀장 김호균 △ “ 해외영업팀장 전병석 △ “ 중국법인 품질보증팀장 이상원 △이수시스템 경영지원팀장 남동우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채권부문 운동환 전무

◆코람코 <승진> ◇부사장 △코람코자산신탁 윤장호 리츠사업2부문장 ◇전무 △코람코자산신탁 김철규 리츠사업1부문장 △코람코자산신탁 최영선 국내2부문장 ◇상무 △코람코자산신탁 이주영 리츠사업1부문 투자운용1본부장 △ “ 장성권 리츠사업2부문 투자운용1본부장 △ “ 최승호 가치투자운용 부문 투자운용본부장 △코람코자산신탁 박현석 국내1부문 투자운용1본부장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김건석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아산사회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 정태경 △복지사업실장 오성규 △동부지역관리본부장 겸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이창호 △서부지역관리본부장 겸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부음

▲박수연 씨 별세, 최찬수(위니아 대표이사) 씨 모친상 = 5일,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051-550-9991

▲강문상 씨 별세, 조정자 씨 남편상, 강한(삼성전자 이탈리아법인 리스크관리팀장)·지연·소연·세나 씨 부친상, 히라누마 히로히토(일본 다마고등학교 부교장)·한승혁(기아 서정주지점장)·이기태(삼성증권 상무) 씨 장인상, 박수정 씨 시부상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

▲이명순 씨 별세, 홍성우(연합뉴스 마케팅부 부장)·미경·미숙·미희(한밭대학교) 씨 모친상, 이상운(이내과 원장)·이중호(한밭대학교) 씨 장모상 = 5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정오, 02-2227-7556

LS일렉, 수중사진 공모 대상
이수연 작가 ‘잭피쉬의 얼굴’



LS일렉트릭의 수중사진 공모전이 10주년을 맞았다. LS일렉트릭은 5일 서울시 수중·핀수영협회와 공동으로 LS용산타워에서 ‘제10회 LS일렉트릭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 전국 수중사진 공모전’은 수중 세계의 신비로움을 일반인과 공유하고 물론 바다를 맑고 푸르게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까지 △수중 사진 △해양환경 2개 부문에 총 2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중사진 부문 20점, 해양환경 20점 등 총 40개 작품이 입선했다.

최우수상에는 이수연 작가의 ‘잭피쉬의 얼굴(Face of Jackfish·사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작가가 지난 9월 세계의 아쿠아리움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된 멕시코 카보폴모 국립공원에서 잭피쉬들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군무를 하며 다이버를 삼킬 듯한 모습을 한 장면을 담았다.

‘LS일렉트릭 수중사진 공모전’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지켜나가는 의미를 담은 공모전을 직접 제안, 기획하면서 시작했다. 스킨스쿠버 마니아로 잘 알려진 구 회장은 공식 다이빙 기록 2000회를 비롯해 3분 40초 무호흡 기록과 스쿠버 강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수중·핀수영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대숙 기자 citizen@·사진제공 LS일렉트릭

임병용 부회장 등 GS건설 최고경영진
폭 베트남 주석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GS건설 최고 경영진이 방한 중인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을 하고 베트남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GS건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병용 부회장, 허명수 상임고문, 허윤홍 신사업부문 대표, 김태진 CFO(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GS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사업

과 향후 신규 사업에 대한 베트남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폭 주석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GS건설의 여러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베트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GS건설은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건설 자재 제조설비, 도로, 철도, 신도시, 환경수처리설비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에 한 축을 담당하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KT&G, 라오스 논게오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

임직원 기부 ‘상상펀드’로 비용 마련... 교육 인프라도 지원

KT&G는 사단법인 나눔문화예술협회와 함께 1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논게오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상학(사진 왼쪽 두 번째)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 유현숙(첫 번째) 나눔문화예술협회 이사장, 꾀 심마라웁(세 번째)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논게오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KT&G는 라오스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논게오 지역에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했으며, 착공 약 1년 만에 초등학교를 완공했다. 기존의 낡고 열악했던 학교 건물은 교실 6개, 다목적실, 교무실, 화장실 4개 등을 갖춘 교육시설로 재탄생했다. 교실과 다목적실에 컴퓨터, 선풍기, 책걸상, 악기 등 기자재가 마련되고 야외에는 축구장이 조성됐다.

학교 건립에 든 비용은 KT&G 임직원



GS건설 최고경영진이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허명수(왼쪽) GS건설 상임고문과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GS건설



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인 ‘상상펀드’로 전액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만의 독창적 사회공헌기금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사진제공 KT&G

“2020년 대선은 사기” 머스크·트럼프, 맞장구?

바이든 차남 의혹 기사 차단 당시 “트위터 내부논쟁 있었다” 밝히자 “선거결과 폐기, 다시 치르자” 주장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트위터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헨터 바이든 의혹 기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헨터 바이든의 의혹 기사를 막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리겠다”며 언론인 맷 타이버의 ‘트위터 파일’이란 제목의 트윗을 공유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헨터 관련 의혹 기사는 대선 3주 전인 2020년 10월 뉴욕포스트가 한 보도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헨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하며 신원미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헨터를 임원으로 채용한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대표가 바이든 당시 후보를 만났음을 시사하는 이메일 등이 담긴 노트북이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발견됐다. 트위터는 당시 기사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트위터 내 보도 공유를 차단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런 대규모 사기는 헌법의 모든 규칙, 규정 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건국자들은 이런 거짓과 사기 선거를 원하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년 선거 결과를 폐기하고 정당한 승자를 선언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거를 치를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정영인 기자 oin@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구교수·정치학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카운트다운?

“검토하겠다”가 말버릇이 된 기시다 총리를 많은 일본인이 ‘검토사’라고 야유하고 있다. ‘검토사’의 일본어 발음은 옛날에 일본이 당나라에 보낸 ‘견당사’의 발음과 같은 ‘겐토시’이므로 일본인들이 기시다 총리를 재미삼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한 내용도 계속 바뀌어나가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야유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퇴진이 카운트다운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하다. 지난 한 달 사이에 3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지금 또 다른 장관 한 명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실시하는 언론사마다 경향이 다르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NHK의 11월 조사(11월 11~13일)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졌다. 자민당 지지율은 37.1%까지 떨어졌다. 자민당 지지율은 7월 59%, 8월 46%, 9월 40%, 10월 38%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급기야 지난달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43%로 ‘지지한다’를 역전했다. 현재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 안팎이 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내각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은 조금 고독하고 괴로울 때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급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 요인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어온 최대 파벌 아베파가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후임 회장을 내지 못한 채 분열 양

상을 보여 설명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려도 자신들의 파벌에서 총재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 얼굴로는 싸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 누가 후임으로 적합하냐고 하면 아직 대안이 없다. 기시다 총리를 대신 해 자신이 총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약해서 기시다 총리가 의회 해산 후 총선거를 선언해도 현재 야당으로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을 이길 수 없고 다시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이 있다. 야당들의 추종으로 장관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지만, 야당이 정책 제시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내각에 대한 비판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눈에는 비친다. 그런 야당이기에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당 의원도 적지 않다. 그리고 현재 정계에서의 최대 쟁점은 통일과 현금 문제를 둘러싼 신법 통과 문제, 방위비와 그 재원을 둘러싼 증세 문제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약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여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국방예산 목표도 염두에 둔다’며 ‘2023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얼마나 증액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의 2% 정도로 증액하도록 스키 순이치 재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에게 지시했다. 처음으로 2%라는 숫자가 공식적으로 정부 방침으로 나왔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 방위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며 기시다 총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검토하겠다”가 말버릇이 된 기시다 총리를 많은 일본인이 ‘검토사’라고 야유하고 있다. ‘검토사’의 일본어 발음은 옛날에 일본이 당나라에 보낸 ‘견당사’의 발음과 같은 ‘겐토시’이므로 일본인들이 기시다 총리를 재미삼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한 내용도 계속 바뀌어나가는 기시다 총

리에 대한 야유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경제대책에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엔저라는 상황의 정착과 물가 상승 등 문제는 앞으로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악화 속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논의를 한다면 하락이 멈추지 않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인 것이 ‘지도력이 없다’는 점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눈앞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 급급해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라는 명확한 비전을 기시다 총리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나 ‘디지털 전환도시 구상’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거나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분간은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없는 기시다 내각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계속 비칠 수밖에 없다.

정책발언대



박진우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이투데이, 말투데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픈 삶과 지상의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감독 특유의 디테일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냄새’다. 영화 곳곳에서 냄새는 부자인 박 대표(이선균)와 가난한 서민인 기택(송강호) 사이에 갈등의 불씨로 등장한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빈자들 사이의 난장판 속에 깔에 깔려 죽어가는 딸을 보아야 하는 처참함 속에서도, 냄새를 잡지 못해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하려는 박 대표를 대하며 기택의 분노는 끝내 폭발하게 된다. 여러 차례 ‘냄새가 선을 넘는다’라는 박 대표의 말에 자신의 몸이 코를 들이대 보지만 정작 그 자신은 못 느끼는 기택의 냄

새는 ‘지하철 탈 때 나는 냄새’ 혹은,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로 설명된다. 그리고 박 대표의 아들은 기택의 딸인 미술 선생님과 아내인 가사도우미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가난한 기택 가족을 둘러싼 냄새는 반지하의 퀴퀴하고 습한 환경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생물이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생물은 주변을 둘러싼 미생물 군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들 미생물 군집,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장내 미생물 군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식하는 대변 이식은 이미 치료 방법의 하나로 보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작물생산, 축산, 농업환경, 농산물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매우

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오바마 정부 주도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도 앞다투어 관련 사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시장 규모는 식음료의 경우 2019년 747억1000만 달러에서 2023년 1004억 달러, 헬스케어의 경우 2019년 59억5000만 달러에서 2023년 75억5000만 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작물생산, 축산, 농업환경, 농산물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매우

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가족을 둘러싼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상류사회를 기웃거리려도 결국은 냄새라는 벽으로 그들을 가두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라는 도구로 한국 사회의 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성공을 거뒀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그 성공 신화를 이어받아야 할 때다. 반지하의 냄새는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지만, 농업 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이 세계 농업기술을 주도하는 농업계의 ‘기생충’으로 K-농업기술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칼릴 지브란 명언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철학자, 화가, 소설가, 시인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레바논의 대표 작가다. 아랍과 비아랍, 이슬람과 기독교, 레바논과 뉴욕 등 이질적인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특유의 이중적 세계관을 가진 그는 영어 산문시집 ‘예언자’, 아랍어로 쓴 소설 ‘부러진 날개’ 등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83-1931.
☆ 고사성어 /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얻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어진 정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다는 말로 좋은 정치의 덕이 널리 미친다는 것을 비유한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에 나온다. 초(楚)나라 섭공(葉公) 심제량(沈諸梁)이 지방을 잘 다스리려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孔子)가 한 말에서 유래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한다[近者悅遠者來].” 백성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잘하면 가까운 곳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도 정치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다는 뜻이다.

기자수첩



노승길 / 정치경제부

화물연대 파업, 정부·국회 책임은

지난 주말 아내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처가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기름이 바다나 익숙하게 집 근처 셀프 주유소로 향했다. 차를 세우고 주유기에 다가가기 휘발유 주유건은 ‘품질’이라고 쓰인 A4 용지에 감싸져 있었다. 짜증이 났다. 처가까지 가는 길에 기자가 가진 신용카드가 할인받을 수 있는 주유소는 이곳뿐이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해서 날 불편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순

간 뒤통수가 저렸다. 파업의 시작점을 알고 있는 기자조차 막상 불편함을 겪으니 아무 생각 없이 화물연대를 원망한 것이다. 정부는 연일 경제적 피해, 국민 불편을 앞세워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더 이상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업무에 복귀하라며 업무개시 명령까지 결렬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파업 시작점의 한 축이 정부라는 사실은 경제와 국민이라는 병풍 뒤에 숨겼다. 사태의 발단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

행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여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름은 안전운임제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운임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철강재, 곡물 및 사료, 자동차 등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자 6월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

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8일 만에 파업이 종결됐다. 문제는 이후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와 이렇다 할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은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여당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파업에 따른 부작용은 연일 시끄럽게 울려대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국민 불편을 생각한다면 화물연대와의 대화, 그리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찰에 나서길 바란다. noga813@

☆ 시사상식 / 리테일 테라피(Retail Therapy)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에 유통이 합쳐진 말. 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힐링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는 물론 경험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기존보다 판매 공간을 줄이고 고객에게 휴식과 다양한 체험·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추세다.
☆ 속담/가꿀 나무는 밑동을 높여 자른다
미래를 생각해서 일찍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과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책상머리 교육이 아닌,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최근 만난 대기업 반도체 관련 고위 인사의 얘기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린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은 ‘경제 성장’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면 세계 각국은 반도체 공급망 부족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 방위에 공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대만을 선봉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TSMC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

데스크칼럼



신동민
부국장 겸 산업부장

육성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루아침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 쉰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정쟁과 삼성전자 특혜법(?) 논란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

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야당의원은 삼성 특혜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자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텔로 하여금 다시 세계 1위 반도체 왕좌를 되찾게 하려고 막대한 자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정부도 토요타와 소니, 키옥시아, 덴소,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IFJ은행 등 주요 대기업 8개사가 공동으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데 700억 원(약 6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특혜인가.

미국과 일본의 1980년대 ‘반도체 전쟁’ 당시 굴복한 일본 반도체산업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단순히 재벌 기업으로 인식해 지원을 주저하다가는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게 된다. 자국중심주의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기업의 사활을 넘어 국가의 경제 존망이 달린 싸움터다.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불황이 닥치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8월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난달에는 약 30%까지 감소했다. 내년 반도체 불황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올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반도체 시장통계기구(WSTS)도 내년 반도체 시장 매출이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속히 ‘K칩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여야 정쟁을 멈추고 올해 안에 ‘K칩스법’ 통과와 반도체 육성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lawsdm@

그 역에 가고 싶다

‘태백산맥’과 겨울꼬막, 벌교역

벌교역은 1930년 12월 경전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벌교역은 소설 ‘태백산맥’에서 이념전쟁으로 갈라섰던 형제가 죽음으로 화해하는 곳으로 묘사되었던 장소로, 벌교천과 칠동천이 만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벌교역은 1987년에 신축된 것으로, 역사 광장에 벌교역 유래비와 벌교의 명물 꼬막, 그 꼬막을 채취하기 위한 뿔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놓여있어 특별한 재미를 준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홍교(보물 제304호)를 나타내는 꽃 상징물(사진)이다. 무려 1723년에 벌교천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로, 전국에 남아 있는 홍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며, 지금도 사람들이 통행할 만큼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벌교는 포구에 뗏목을 띄어 다리를 놓아 건너 다니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낙안고을의 고읍면에 속해 있던 작은 포구 벌교 지역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의 명암이 짙게 깔려 있다. 일제강점기 보성과 고흥 일대의 물산을 일본으로 실어내기 위한 포구 도시였기 때문이다.

벌교읍은 보성읍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정도로 사람이 많고, 활기찬 공간이다. 그런 벌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꼬막이다. 매년 꼬막 철이 되면 벌교역은 꼬막을 흥정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호남사람에게 겨울에 벌교를 간다는 말



은 꼬막을 사러 간다는 말로 통할 정도라고 한다. 덕분에 벌교역엔 짝짝하고 고소한 꼬막 냄새가 가득해서 다른 일로 방문한 사람도 꼬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꼬막은 ‘재물보(才物譜)’(1798)에 ‘호남사람들이 꼬막이라 칭한다’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말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鱖山魚譜)’(1814)에도 꼬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연원이 재미있다. 꼬맹이, 꼬마 등 작은 것을 지칭하는 접두어 ‘꼬’에, 오두막, 움막 같은 작은 공간을 나타내는 ‘막’이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 바로 기와 지붕처럼 생긴 꼬막 껍데기 때문에 꼬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조성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은 1950년대 벌교를 중심으로 냉전 체제에 휩쓸린 한반도의 비극을 다룬 소설로 ‘20세기 한국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히며 7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다. 소설의 입구 벌교역을 나서면 소설 ‘태백산맥’이 펼쳐진다.

보성여관은 소설 속 남도여관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2012년 한옥과 일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과거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연이어 나타나는 술도가, 벌교 금융조합, 김범우의 집, 소화의 집 공간이 그대로 현실에 남아있다. 마치 소설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또한 조성래 작가의 진필 취재 메모와 소설 필사본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소설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현부재네 집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어 벌교 문학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뉴욕통신



공완섭
재미언론인

인플레·침체보다 더 무서운 소비 본능

12월 들어서자마자 낭보가 하나 전해졌다. 휘발유 값이 우크라이나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1월 초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오를 거라던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호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 쇼핑 시즌을 앞두고 고금리에 고물가, 내년 경기침체 예고 등으로 잔뜩 불안해하던 터였는데,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든 만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실 서민들은 불안한 쇼핑을 하고 있다. 물가로 보나 금리 수준으로 보나 마음 놓고 돈을 쓸 상황은 아니다. 예상보다는 낮았다고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난 10월에도 7.7%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를 넘겨야 할 판이다. 초고속으로 인상한 금리도 이달 한 차례 더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더 그렇다.

그래서 전국소매점연맹은 올 연말 대목(11월 1일~12월 31일)은 전년보다 6~8%가량 늘어난 9426억~9604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다. 선물과 할라데이 장식물 쇼핑 액수만 따지면 지난해보다 5%가량 줄어든 가구당 833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딜로이트는 연봉 10

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들도 지난해보다 7%가량 줄어든 2624달러를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물 개수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는 11개로 대폭 줄일 거라고 보았다. 선물을 줄이고 여행에 더 돈을 쓰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업계의 전망과 우려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까지 5일간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은 1억9670만 명. 지난해보다 1700만 명이나 더 많고, 소매점연맹이 추적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다 숫자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늘었다. 온라인 쇼핑객은 전년 대비 2% 늘어난 데 그쳤지만 상품에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17%나 늘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 소비자가 무려 872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액수로 봐도 연말 대목은 대박이 낫다. 사이버먼데이 쇼핑 총액은 113억 달러. 지난해보다 5.8%가 늘었다. 사상 최고 실적이다. 5일간 총액은 352억 달러로 최고 기록이다.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에 고금리, 불경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소비자들이 쇼핑물로 달려간 이유는 뭘까. 우선 팬데믹이 사실상 물러갔고, 공급망이 다



주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뉴욕주 멜빌 코스트코 매장.

소 안정화되었으며, 노동시장이 건강하다는 점 등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유가 안정도 한몫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불감치는 소비자들의 소비본능을 부추겨 쇼핑물로 불러들인 소매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컸다.

통상 연말 할라데이 시즌은 핼러윈 10월 초부터, 추수감사절은 11월 초, 크리스마스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경기가 예견될 때마다 조금씩 당기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늘어났다. 올해 가장 먼저 불을 댕긴 건 코스트코. 8월 한여름 매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아마존은 두 번째 할인 행사인 프라이데이를 10월에 앞당겨 개최했다. 타깃은 10월 내내 블랙프라이데이 수준의 세일을 실시했다. 사실상 시즌을 두 달가량이나 앞당긴 셈이

다. 또 백화점과 유명 패션, 보석 브랜드들도 11월부터 대대적인 연말 세일 광고전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앞당겨진 시즌은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소비 성향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해 소비를 억제하고 현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마땅하나 쇼핑물로 물러가는 현상에 기업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비자행동 이론이나 구매심리 같은 이론적 접근방식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소비본능이 있고, 그것이 때론 금리나 물가,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당장 구매를 할까, 아니면 세일 때까지 기다릴까. 선물과 여행, 어느 쪽에 더 돈을 많이 쓸까. 온라인 배송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상점을 찾을 것인가...

대형 할인점 콜스의 피터 본파르트 회장은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올 거라는 걸 믿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빗대어 말했다. 산타가 오긴 오는데, 과연 썰매 안에 선물이 들어있을까. 어린이 같은 궁금증을 대형 소매점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다는 건 웃을 일만은 아니다. 할라데이 쇼핑을 예측하는 건 과일케이크 레시피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우스갯소리를 올리는 흘러들어선 안 될 듯 싶다.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푸른 지구를 되찾을 시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